

한국 YWCA

2022년 9·10월호
SEP · OCT Vol.580



특집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

기독교여성운동 100년 여정에 감사, YWCA 향해는 계속된다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 시상식

기획1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청소년 기후운동

청소년의 목소리로 만드는 기후운동을 위해
Y-틴 청소년 기후행동, 우리의 요구 100인 성명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정의는 곧 젠더정의

이달의 현장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순천	061.744.7990
거제	055.682.4950	안동	054.854.5481
(사)고양	031.919.4040	(사)안산	031.483.6536
광명	02.895.1966	(사)안양	031.455.2700
광양	061.762.0012	(사)양산	055.367.1144
(사)광주	062.609.1300	(사)여수	061.654.2161
군산	063.462.4491	(사)울산	052.247.3520
김해	055.332.6000	원주	033.742.6090
남양주	031.577.7762	의정부	031.853.6332
남원	063.632.7002	익산	063.857.8910
(사)논산	041.736.7393	(사)인천	032.424.0524
(사)대구	053.652.0070	(사)전주	063.224.5501
(사)대전	042.254.3035	(사)제주	064.711.8322
동해	033.531.3007	제천	043.645.2580
마산	055.246.8746	진주	055.755.3463
(사)목포	061.242.1611	진해	055.542.0020
(사)부산	051.441.2221	(사)창원	055.283.9488
부천	032.668.9700	천안	041.575.0961
사천	055.833.2344	(사)청주	043.265.3700
(사)서귀포	064.762.1400	춘천	033.254.4878
(사)서울	02.3705.6000	충주	043.848.3240
서천	041.951.6400	(사)통영	055.646.2547
성남	031.708.2503	파주	031.945.5998
(사)세종	044.865.2432	평택	031.651.7701
속초	033.635.3523	포항	054.274.4444
(사)수원	031.252.5111	하남	031.793.7771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고자 활동을 펼치는 YWCA가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 제작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1996년 제정한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미디어콘텐츠상'이 올해로 2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에 YWCA는 올해에도 TV뿐 아니라 뉴미디어 매체에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잘 표현하고 청년을 주제로 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회원들과 시민 누구나 좋은 미디어콘텐츠 추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인,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추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프로그램 : 지상파, 위성, 케이블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뉴미디어 콘텐츠 : 온라인 기반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OTT 등 동영상 재생 가능 플랫폼
추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라마, 예능, 다큐, 교양 등의 모든 방송 유형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방영된 프로그램 (2022년 10월 31일까지 전체분량의 2/3 이상 방영된 프로그램)을 추천
추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부문 :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잘 그려내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프로그램이자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 ·생명 부문 :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높인 프로그램 ·기후위기 문제를 드러내고 행동을 촉구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 ·정의·평화 부문 : 남북통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평화가치 구현에 기여한 프로그램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정의가치 구현에 기여한 프로그램 ·청년 부문 : 세상과 사회를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년 세대와 다른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정신을 담은 프로그램
추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 기간 : 11월 21일(월)까지 ·추천 방법 : 구글 폼(https://bit.ly/3Cltg8h)에서 추천서 작성 후 제출 (홈페이지 ywca.or.kr의 공지사항 참조)
심사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 서류심사, 영상물 심사 ·발표 : (1차) 11월 25일경, (2차) 12월 8일경 (개별연락)
시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예정)

2022. 9·10 한국YWCA



표지이야기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청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라'를 외치는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와 회원들.

2022년 11·12월 주요일정

11월 1일	11월 월례기도회
11월 2일	제5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11월 3일	광주YWCA 창립100주년 기념식
11월 4일~5일	법인이사 워크숍
11월 7일	여성가족부 폐지관련 회원YWCA 브리핑
11월 10일	서울YWCA 창립100주년 감사음악회
11월 11일	한국YWCA 100주년 기념 청년포럼
11월 15일	YM/YW 기도주간 연합예배
11월 23일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11월 26일	카디리학교 10주년 심포지엄
11월 30일	회원Y 도너스 온라인 모금 워크숍
12월 8일	연합회 성탄예배
12월 9일	서울YWCA 창립100주년 기념식
12월 22일	'홍청망청' 최종 보고회
12월 23일	제 26회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제58권 제4호 통권 580호

2022년 10월 31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김은주 최수산나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새로운 100년, 더 큰 목소리로 | 김은경
- 05 **말씀 묵상** 열등감 없는 변방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 김은하

특집 한국YWCA 100주년 감사축제

- 06 기독교성운동 100년 여정에 감사, YWCA 항해는 계속된다
- 09 시상식_ 봉사상, 근속상
- 12 100주년 기념 특별상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 시민이 뽑은 YWCA 프로그램상
- 15 YWCA 아너스 소사이어티
- 16 교제와 나눔, 오픈버스
- 18 축하공연 참가기, DMC 어린이합창단, 바투타, 충주YWCA찬무단

기획1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청소년 기후운동

- 20 청소년의 목소리로 만드는 기후운동을 위해 | 유에스터
- 21 수원Y, 청소년 제로웨이스트데이 행사 벌여 | 변남순
- 23 Y-틴 청소년 기후행동, 우리의 요구 100인 성명 | Y틴

기획2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정의는 곧 젠더정의 | 이윤숙

- 24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정의는 곧 젠더정의 | 이윤숙
- 26 성평등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차별 구조와 인식 | 권수현
- 28 청년토크 플랫폼에 갇히다 | 대학·청년Y
- 30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이토록 광 찬 여성서사 <작은 아씨들> | 오수경

기획3 이달의 현장 ① 제3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경제편 | 이슬기

- 34 이달의 현장 ② 924 기후정의행진 | 편집실
- 38 이달의 현장 ③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 이현주
- 40 이달의 현장 ④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 편집실

기획4 WCC(세계교회협의회)를 다녀와서

- 40 2030, 제12차 총회는 열릴 것인가? | 장윤재
- 44 한반도 통일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 최수산나
- 46 WCC 11차 총회 청년사전대회 | 이한빛
- 48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할 자원군 얻은 시간 | 서다미
- 49 경계를 말하고 듣고 넘는 곳, GETI | 유에스터

51 YWCA 변화와 혁신10 | 조직혁신지원국

- 54 YWCA 9월기후정의행동 참가선언문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청(소)년, 여성, 지역의 자리로부터
- 55 한국YWCA 성명서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사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 56 한국YWCA 논평 한반도를 위협으로 내모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

57 연합회 소식 | 연합회 모금현황

- 66 회원YWCA 소식

새로운 100년, 더 큰 목소리로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서기이사



지난 100년 동안 한국YWCA는 여성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해 왔으며, 여성인권의 향상과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그 기준과 방향은 특정 개인과 시대를 뛰어넘어 오직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향한 헌신이었기에 '한국YWCA의 역사는 한국여성운동의 역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100년이 시작된 2022년 가을, 전국 방방곡곡 8만의 회원들이 다시 횃불을 들고 있다.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해 힘겹게 쌓아올린 성과들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금 우리는 '성평등 전담기구'의 기능 확대와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현 정부의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과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견고한 유리천장 등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부처간 성평등업무 지원과 정책 조정, 분석, 평가 등의 기능을 갖춘 국무위원급 지위의 독립부처를 일개 부처 산하 본부로 격하시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조차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의도는 '반페미니스트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로 비난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심상치 않은 폭우 앞에 우리는 깨달았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것을. 기후 위기는 기존의 성/불평등을 악화시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한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일을 중단한 것은 주로 여성이었고 코로나 시기 돌봄 사유로 인해 중단한 일자리는 지속한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유연성이나 자녀돌봄 유연성이 낮은 일자리였다. 이에 감염병/위기/재난상황 대응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성반응적인*(gender-responsive) 국가기후정책의 실행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젠더와 기후변화이슈를 강조한 협약과 파리협정에 따른 관련 아젠다를 설정할 것을 약속했다.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수립된 정책과 프로젝트는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책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전 인류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이 겪는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공동의 문제인식에서 비롯된다.

'당사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조치를 취할 때 성평등, 여성의 권한부여, 세대 간의 평등 뿐만 아니라 인권, 건강권, 토착민족, 지역사회, 이민자, 아동, 장애인,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권리, 개발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각국의 의무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고려해야 한다.' - 2015 파리협정

불평등과 혐오를 없애는 대신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젠더 관점을 반영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정책 수립을 외면하는 자금의 현실 앞에 우리는 다시 1922년 구국의 초석이 되고자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를 세운 YWCA지도력을 떠올린다. 그리고 다짐한다. 더 큰 목소리로,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횃불을 들어야 한다.

* 단순히 성별차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접근(성인지적 gender-sensitive)접근에서 젠더차이에 대한 규범, 인식, 선입견을 분석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한다는 뜻

열등감 없는 변방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김은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말씀: 민수기 27:1-11

오늘 본문은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라고 하는 슬로브핫 가문의 여성들이 가나안 땅 토지분배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된 불평등한 상황에 대응하여 지혜롭게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여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마련하여 후대 여인들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여성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법과 질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에 새로운 기회가 도래한다는 것을 슬로브핫 가문 여성들은 알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의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민으로서 변화를 꾀하는 시점에, 마땅히 자신들 몫으로 받아야 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자신들의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과 무관함을 주장하여 재산 상속의 명분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여성들의 태도는 분노나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의 1인으로서 당당하게 모세와 협상을 하여 새로운 규례를 만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 열등감없이 변방의 목소리를 함께 냄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세계역사에서 이런 일을 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창설에 기여한 세계YWCA 여성들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총대 혹은 지도부에 여성, 남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 국적, 교단 등 구성원들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계교회협의회도 처음 시작부터 여성을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1946

년 세계교회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첫 회의에는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지도자의 아내인 트왈라 캐버트는 미국YWCA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세계 YWCA와 협력하여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여성단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응답으로 전 세계 58개국 여성들이 회신을 보냈고, 그 여성들이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직전에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바로 여성사전대회의 기원입니다. 이들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 여성위원회가 창설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세기 초 여성들의 연대는 새로운 교회 개혁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답답한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세계는 점점 더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경제위기, 생명위기, 평화 위기의 시대로 치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슬로브핫 가문의 딸들이 서로 지혜를 모아 개혁의 튼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간 것처럼, 20세기 세계YWCA여성들이 글로벌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어 후대 여성들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의 후대의 여성들이 내 어깨를 딛고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미래를 향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열등감없는 변방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글·편집실

올해 창립100주년을 맞은 한국YWCA연합회는 9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회원과 시민이 함께 이루어온 기독교여성운동 100년의 여정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한국YWCA 창립100주년 감사축제'를 열었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는 CBS 김홍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원영희 회장의 개회기도와 환영사, 김재화 시인의 100주년 축하시, 소리엘 장혁재님의 찬양으로 시작했다.

8만 회원과 시민들이 이어온

기독교여성운동 100년의 여정에 감사

원영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YWCA 100년은 우리들만의 100년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100년이고, 기독교여성운동의 100년”임을 언급하며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의 모든 활동가들과 회원들, YWCA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에 함께 해 주신 시민들이 함께 맞는 100주년”임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축제는 100년의 여정에 함께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봉사자와 헌신으로 함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시상식, 축하공연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 퍼포먼스로 100주년 엠블럼(“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을 전달하며 미래세대에게 100년 이후 YWCA가 순항하도록 기원했다.

YWCA대상, 문태임상, 박에스터상, 감사패 증정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 표해

이날 100주년 감사축제에서는 YWCA의 정신과 뜻에 입각하여 YWCA성장, 발전에 공이 큰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YWCA 대상’(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과 YWCA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을 세운 자원활동가에게 수여하는 ‘문태임상’(최현자 청주YWCA 증경회장, 황혜숙 고양YWCA 증경회장, 김형남 전주YWCA 증경회장), YWCA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을 세운 실무 활동가에게 수여하는 ‘박에스터상’(이희경 세종YWCA 사무총장,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 등이 수여되었다.



또한 전국 YWCA 회원을 대상으로 50년 봉사상 14명, 40년 봉사상 25명, 30년 봉사상 78명, 20년 봉사상 138명 등의 봉사상이 시상되었다. 한편 실무활동가들에게는 30년 근속상 6명, 20년 근속상 69명, 10년 근속상 288명으로 근속상이 주어졌다.

YWCA의 100년의 여정에 함께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감사패는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표대중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소셜디벨로퍼그룹 더함, 세계YWCA, (주)한국씨티은행에게 수여됐다.

총 1억원 이상 후원자 YWCA 아너소사이어티 제정

한국YWCA연합회는 YWCA를 후원한 후원자들의 헌신을 영예롭게 기리면서 특별히 감사를 표하기 위해 ‘YWCA 아너소사이어티’를 제정했으며 멤버는 총 1억원 이상 후원자(현재 운영되는 기금 후원자, 건물/부동산 기부자 포함)이다. 2022년 9월 현재 12명이다. 감사축제의 여러 시상식

에 이어 바투타의 난타 퍼포먼스, 충주YWCA 찬무단, 대전 DMC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국YWCA가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평화, 탈핵운동 등을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결단하고, 에큐메니컬 기독교운동단체로서 교회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결단했다. 감사축제 마지막 퍼포먼스로 YWCA가 10대부터 80대에 이르는 회원들은 100년을 넘어 계속하여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유관순 기념관 입구에 마련된 오픈부스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홍청망청’, ‘YWCA 1922 장학금’ 등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응원과 모금 참여,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성운동과 생명운동 생각해 보기, 새로운 한국YWCA 회가 작사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감사축제 참석자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원영희 회장, 대상 강교자 수상자, 김숙희 10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대상 차경애 수상자



왼쪽부터 문태임상 수상자 최현자, 원영희 회장, 황혜숙 수상자, 김형남 수상자



왼쪽부터 박에스더상 수상자 이희경, 원영희 회장, 이신선 수상자

특별상으로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 '시민이 뽑은 YWCA 프로그램상' 선정

또한, 한국YWCA 100주년 기념 특별상으로 지난 8월 5,396명의 시민들이 투표하여 선정한 '시민이 뽑은 YWCA 프로그램상'으로 18년간 지역사회에서 환경을 살리고 수익금으로 이웃을 도운 인천YWCA의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가 선정되었다. 또한 부산YWCA의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운동과 탈핵운동', 안산YWCA의 '의정지킴이'가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동해YWCA의 나도 환경운동가, 부산YWCA의 시민 태양광 발전소, 대구YWCA의 카부츠벼룩시장, 광주YWCA의 의류분쟁

조정위원회, 고양YWCA의 기후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안양YWCA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 사업 등이 세상을 밝히는 YWCA 프로그램상으로 추천되었다.

한국YWCA는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로 시작하여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단체이다. 한국YWCA 100년은 한국 여성운동의 100년으로 몇 세대를 이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현실을 바꾸어 정의, 평화, 생명살림을 실천해온 역사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를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기독교여성운동의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

50년 봉사상 소감
이숙현 한국YWCA연합회 전 임원

YWCA와 함께 성장하여 당당한 삶 배워

한국YWCA 창립 100주년, 하나님의 기관인 YWCA에서 55년 동안 봉사하며 살아왔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회 격변기에 사회운동기관으로 우뚝선 YWCA에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울고 웃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니 나의 젊은 날들이 엇그제 같고 생생한 파노라마 같이 펼쳐집니다. 사회를 많이 변화시킨 YWCA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기쁘게 참여하며 활동했던 일들이 생각합니다. 당시 일반인들이 가기 어려웠던 여러 나라를 다니며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긴 세월 봉사했다지만 내가 더 성장했고 어떤 일에도 당당한 삶을 배웠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채굴지에 단장으로 여성 기자들 30명과 함께 방문하여 지하 150m~200m 되는 막장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고, 그로 인해 규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던 일, IMF 때 달러를 모으기 위

해 김포공항에 매일 나가 달려모으기 캠페인을 진행했던 일, 회원YWCA를 창립하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지원했던 일, 서울 YWCA 소강당에서 청개구리 마당을 열어 젊은이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던 일, 가족법 개정을 위해 이태영 선생님을 모시고 각 교회를 다니며 서명을 받고, 서명 보따리를 전달했던 일 등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시절 훌륭한 선배님들이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셔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었고, 근검절약을 배우며 살았던 것이 지금 제 삶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가 우리사회에 영원히 지속하며, 급변하는 세계와 한국사회 속에서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해 나가며 하나님의 기관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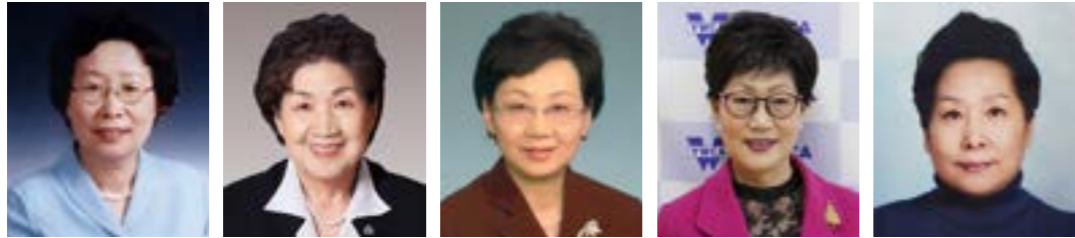
40년 봉사상 소감
장혜숙 광주 YWCA 증경회장

한국 YWCA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한국 YWCA의 지나온 100년은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쉽지가 달려온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YWCA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시의 장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배경에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꿈꾸어 온 선배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열며, 100주년 감사축제에 감격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Y(Young) W(Women's) C(Christian) A(Association)! 한국 YWCA는 세속화되고 다원화되는 세계적 경향에 휩쓸리지 않고 C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YWCA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인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봉사상 50년상(14명)



황혜숙 고양YWCA | 김경천 광주YWCA | 안희옥 광주YWCA | 김숙자 서울YWCA | 김혜란 서울YWCA



홍기자 전주YWCA | 최현자 청주YWCA | 김형 한국YWCA연합회 | 김영희 한국YWCA연합회 | 신희운 한국YWCA연합회



이숙현 한국YWCA연합회 |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 최만자 한국YWCA연합회 | 홍인숙 한국YWCA연합회

봉사상 40년상(25명)

- | | | | |
|------------|------------|-------------|---------------|
| 강정임 광주YWCA | 김덕점 대전YWCA | 안정란 의정부YWCA | 이분우 포항YWCA |
| 박경린 광주YWCA | 사영희 대전YWCA | 이명자 전주YWCA | 장호선 포항YWCA |
| 장혜숙 광주YWCA | 이순덕 대전YWCA | 김갑련 진주YWCA |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
| 김초자 대구YWCA | 이은주 대전YWCA | 맹숙희 진주YWCA | 김영자 한국YWCA연합회 |
| 배영자 대구YWCA | 조봉자 부산YWCA | 정둘련 진주YWCA | 박은경 한국YWCA연합회 |
| 정영애 대구YWCA | 박복희 여수YWCA | 공대희 포항YWCA | 안인덕 한국YWCA연합회 |

봉사상 30년상(78명) | 20년상(138명)



40년 봉사상 수상자 단체 사진



왼쪽부터 30년 봉사상 석순옥(동해YWCA) 대표 수상자, 원영희 회장, 30년 봉사상 최명희(전주YWCA) 대표 수상자



왼쪽부터 20년 근속상 박수정(논산YWCA) 대표 수상자, 원영희 회장, 10년 근속상 김의향(거제YWCA) 대표 수상자

근속상 30년상(6명)



최윤정 대구YWCA | 유덕순 대전YWCA | 강민아 서울YWCA | 성윤수 서울YWCA | 임경진 전주YWCA | 임성숙 제주YWCA

근속상 20년상(69명) | 10년상(288명)

100주년에 빛나는 특별상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 시민이 뽑은 YWCA 프로그램상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우리에게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히' 개최되는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다. 지난 9월 29일 (목)에 열린 한국YWCA 100주년 기념 감사축제에서는 한국 YWCA 100주년을 이어오는 동안 창립정신(Y.W.C.A) 및 설립목적 실현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한 3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시상한 특별상의 이름은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이다. 2002년에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면서 'YWCA를 빛낸 프로그램'으로 1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수상했다. 80주년 이후 20년이 흐른 올해는 이 특별상의 이름이 "YWCA를 빛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밝힌" 프로그램으로 명명되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미친 YWCA 영향

력을 확인하고 공유하며 당당하게 선언하였다.

특별상을 수상한 3개의 프로그램은 부산YWCA의 노후 원전 고리1호기 폐쇄운동과 탈핵운동, 안산YWCA의 의정지킴이, 인천YWCA의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 프로그램이다. 3개 회원YWCA에는 상패와 함께 30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되었고, 감사축제 현장에 오신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부스에서 소개되었다.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을 수여한 목적 중 하나가 지역에서의 YWCA 활동을 전국단위에서 알 수 있게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어서 8월에는 추천된 9개 프로그램에 대해 SNS를 활용한 시민투표를 진행하였다. 9일 동안 진행된 투표에는 무려 5,396명의 시민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인천YWCA의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가장 많은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 '시민이 뽑은 YWCA 프로그램상'으로 선정되었다.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으로 선정된 부산YWCA 탈핵운동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부산, 울산, 경주(부울경) 주변에 물려 있는 많은 핵발전소의 위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시

홍현정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왼쪽부터 부산YWCA 김문진 회장, 안산YWCA 이강숙 회장, 원영희 회장, 인천YWCA 노인자 회장



① 부산YWCA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운동과 탈핵운동 ② 안산YWCA 안산 의정지킴이 ③ 인천YWCA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작되었다. 2011년부터 지역의 교회나 회원들과 연대하여 탈핵운동을 해오던 부산YWCA는 시민사회에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연대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2015년 2월 부산의 12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발족시켜 탈핵운동을 지속했다. 2014년부터는 한국YWCA 중점운동으로 이어져 YWCA 10만 서명운동을 당시 부산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전국의 힘으로 '고리1호기 폐쇄'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상의 선정 기준은 지역에서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 오래된 운동을 새롭게 발전시킨 프로그램, 가장 많은 참여를 이끈 프로그램, 사회 제도 변화를 이끈 프로그램, 해외에 알려진 프로그램, 청년 주체성과 청년 참여를 증진한 프로그램 등이었다. 부산YWCA 탈핵운동은 2015년 세계 대회에서도 소개되고, 일본YWCA나 다른 회원국들과 연대하여 한국 YWCA의 탈핵운동을 전개했던 해도 있었다. 또한 시민단

체로서 한국Y의 정체성을 담은 전국 공동 운동으로 전국 회원Y가 함께 실천하고, YWCA 전체가 함께했을 때의 효과와 변화를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의 수상은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안산YWCA의 의정지킴이는 2000년부터 여성 지도력 양성을 목표로 생활정치학교를 운영했다. 수료생들은 '안산 의정지킴이'라는 모임을 가지면서 시의회 방청, 속기록 분석 및 의정활동평가보고회, 신문기고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정지킴이는 안산에서 지방자치 시민참여의 모델로 자리 잡았고,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으며, 안산의정지킴이 활동은 지역의 성주류화정책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으로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안산 의정지킴이는 22년 동안 '여성의 대표성 확대'라는 정량적 목표와 '여성 역량 강화'라는 정성적 목표를 눈에 보이게 개선시켰다. 지방자치 초기 남성들만의 정치판에

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지킴이 출신 시도의원 당선자를 6명을 배출했으며, 4년에 한 번씩 치루는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되는 누적 의정 지킴이 회원 수는 12명이다. 또한, 시민들이 지방의회와 의원을 평가하는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평가보고회 결과가 발표되면 지역 언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미쳤다. 당시 시민에 의한 정치인의 평가가 낮설고 불편했던 의원들은 의정지킴이의 방청을 막으려도 하고, 무슨 권리로 평가를 하나며 항의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은 의정지킴이의 우수 의원상을 자랑스러워하며 선거 때 1순위로 홍보하기도 했다. 안산에서 제출한 추천서에 의하면 의정지킴이의 22년의 역사는 안산의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라고 자부한다.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성장과 여성 지도력 향상을 이룰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시민으로부터 감시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18년간 지역사회에서 환경을 살리고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37회, 60여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일상 속 재활용 실천과 소액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환경, 경제 체험교육과 시민 여가 선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인천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축제다. 60여 만 명이구나!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재활용 장터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YWCA 장터를 같은 날 열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을 통해 장터에 참여한 시민들과 동시에 한국YWCA 운동 이슈에 대해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잠시 해봤다.

세상을 밝힌 YWCA프로그램 상에는 동해YWCA의 나도 환경운동가, 부산YWCA의 시민 태양광 발전소, 대구YWCA의 카부츠버룩시장, 광주YWCA의 의류분쟁조정위원회, 고양YWCA의 기후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안양YWCA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의 프로그램도 추천되었다. 추천된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을 읽으면서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회원YWCA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연합회 활동가인 나

도 이 추천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뿌듯하고 YWCA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데 이 공적서를 직접 작성한 회원YWCA 활동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었다. 연합회는 주로 정책수립과 행정 업무를 하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어우러져 정의, 평화, 생명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회원YWCA에서 직접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나라 운동의 본체는 역시 회원YWCA의 만남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9년 세계대회를 갔을 때 참여했던 워크숍 중에는 'Social Media 활용법'이라는 워크숍이 있었다.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정치인들에게 SNS를 활용해서 YWCA의 이슈를 알리는 방법,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사례 나눔 등에 대해 듣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면 큰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특별상 시상을 위해 진행했던 8월 시민투표를 오픈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회원YWCA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소개 사진이었다. 온라인으로 투표할 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잘 찍은 사진"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는 활동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활동의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진과 문구를 생성해 내는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101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는 올해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라는 슬로건과 비전문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의 첫 단추가 회원YWCA의 숨은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조명하고, 알리면서 지역의 여성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YWCA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 우리 YWCA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영향력 있게 전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량 강화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길 기대한다. 


YWCA 아너스 소사이어티



한국YWCA에서는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 시상식에서 YWCA를 위해 후원한 후원자들의 헌신을 영예롭게 기리면서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YWCA 아너스 소사이어티(Honors Society)의 멤버는 총 1억원 이상 후원자(현재 운영되는 기금 후원자, 건

물/부동산 기부자 포함)입니다.

YWCA 아너스 소사이어티 멤버들께는 인증패 수여, 월간 '한국YWCA' 웹진, 회보 발송, 연말 감사카드 전달, 후원자 명예의 전당 등재(홈페이지), 한국YWCA 행사시 VIP 초대 등의 예우를 제공합니다.  | 글·편집실

YWCA 아너스 소사이어티 멤버 (2022년도 9월 현재)

故조중구	남양주 진접읍 내각리 산 35 외 임야 기증	이행자	이행자 리더십기금 (YWCA활동가 리더십 양성)
故유일한	버들캠프장 부지 기증	이세웅	청소년기금 (청소년활동 지원)
故정원성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기증	故이명혜	이명혜 리더십기금 (실무활동가 장학금)
故김갑현	김갑현 장학기금 (실무활동가 장학금)	이봉진	고의순 나눔기금 (Y-틴 장학금)
故문태임	문태임 송제기금 (문태임상사상금 및 회원Y 사무총장 지도력 양성)	김영자	Y-틴 글로벌리더십 양성
정희경	아시아 여성 발전 및 지도력 양성	김미	글로벌 리더십 양성 및 100주년 기념 화보집 후원

YWCA 여성운동에 공감하며 부스 활동에 참여

임주하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에서는 현장에 오신 회원들과 YWCA운동을 공유하고 참여하도록 유관순 기념관 앞에 오픈부스를 열었다. 오픈 부스는 Y(Young), W(Women), C(Christian), A(Association)으로 4개의 부스로 운영되었다. 각 부스에서는 100주년 기념 특별상으로 '세상을 밝힌 YWCA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3개 프로그램과 YWCA 청년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였다.

Y부스 '청년운동'

Y부스에서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YWCA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 흥청망청' 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부스가 운영되었다. 13개 팀(오케스트라, 요샌뛰하니, 서서이, 북두칠성, 폭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노보프로젝트, 킨트, 세이브미 세이브어스, 잔치여담, 지역청년예술가, ReFill Church, 늘봄, 지역독립서점 디지털 전환프로젝트)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각 팀의 활동 자료와 굿즈도 보며,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와 돌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

W부스 '여성운동'

W부스에서는 세상을 밝힌 YWCA상을 수상한 안산YWCA 의정지킴이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지역의 성평등 운동을 공유하였다. 부스 참가자들은 '검은 목요일 캠페인'을 통한 성폭력과 젠더폭력 저항운동, 여성의 위라벨을 위한 'Y의 미(ME)타임', 성인지 교육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 젠더문화 축제, 언론매체 성평등 모니터링 등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성평등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밖에도 성평등 언어 퀴즈 문제지를 풀어보면서 유모차, 여배우, 미망인 등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성평등한 언어로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관습처럼 자리 잡아오던 차별적 언어들을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활동을 통해 우리 일상 속 언어를 생각해 보고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특히, 행사장이 있는 이화여고에서 방과 후에 W부스를 방문한 학생들은 YWCA의 여성운동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부스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YWCA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여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C부스 '기후·생명·탈핵운동'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문제는 큰 위기다. 빈번해진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확산은 벌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C부스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연을 지키기 위한 우리 지역에서의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공유했다. 세상을 밝힌 YWCA상을 받은 부산YWCA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운동과 탈핵운동'과 시민이 뽑은 YWCA상을 수상한 인천YWCA의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의 활동을 소개하며, 탈핵운동과 자원순환 운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참가자가 각 YWCA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펼치는 곳을 지도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붙여서 분리수거와 EM사용, 제로웨이스트 등과 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과 카부츠, 석탄사용 줄이기, 탈핵 세상을 만들고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회원YWCA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A부스 '회원활동'

마지막으로 A부스에서는 청소년 회원인 Y틴 활동, 대학청년Y 활동을 공유하였고, 한국YWCA 회가를 새롭게 작사 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재 회가를 개사하는 코너



① Y부스 청년운동
② W부스 여성운동
③ C부스 기후·생명·탈핵운동
④ A부스 회원활동

도 마련되었는데, 개사한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52개의 지역으로 떨어져 각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비전과 소망을 품고 마음을 담아 회원들이 직접 개사해 준 가사들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새 회가의 가사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YWCA 창립 100주년 감사축제 현장에 온 YWCA 회원들은 네 개의 부스를 모두 방문하여 각 부스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우리도 이런 활동 했었잖아~" "이거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라고 하시는 회원분들은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응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부스를 통해 소개된 프로그램 외에도 동해YWCA의 나도 환경운동가, 부산YWCA의 시민 태양광 발전소, 대구YWCA의 카부츠벼룩시장, 광주YWCA의 의류분쟁조정위원회, 고양YWCA의 기후위기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안양YWCA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현황 모니터링 사업 등 각 회원Y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건설은 YWCA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회원들이 공유해 주심으로 확산된다. 정의, 평화, 생명으로 세상을 밝히는 변화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고, 여성들은 YWCA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더욱 미칠 수 있길 기대한다. ♡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민설 대전 DMC어린이합창단 단원

한국YWCA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한국YWCA는 여성을 위한 일, 청년을 위한 일, 기후를 위한 일, 종교를 위한 일을 한다는 알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뜻 깊은 일을 하는 단체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니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하 공연 준비를 했다.

‘거치른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이란 새 노래를 배웠다. 가사가 잘 외워지지 않았는데 이민호 지휘자 선생님께서 가사의 뜻과 노래가 만들어졌던 시대의 설명을 해주셨다. 어렵게나마 노래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르며 공연 날을 기다렸다.

9월 29일, 행사가 열리는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 도착하였다. 복직이는 사람들과 수많은 좌석, 우리는 리허설에서 마음처럼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 얼굴표정도 로봇처럼 얼어있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들어와 선생님들과 재미있게 웃는 표정을 연습하고 YWCA에서 준비해주신 간식을 먹으며 조금씩 긴장을 풀고 공연을 기다렸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객석에 앉아계신 YWCA 회원분 모두에게 우리가 드리는 축하 메시지로 공연을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 노래가 끝나고 두 번째 노래인 ‘거치른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을 불렀다. 관객석에 계신 YWCA 회원들께서도 따라 부르셨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는 분,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고 부르는 분, 여러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을 보니 지휘자 선생님께서 얘기 해주셨던 것, 이 노래에 담긴 감정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나도 최대한 가사 하나 하나에 마음을 담아 노래를 했다.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 넘치는 응원과 칭찬 덕분인지 우

리는 그 누구도 전혀 지치지 않고 함께 노래했다. 버스 안은 YWCA 문구가 적힌 흰색 클래퍼 소리와 우리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아마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 같다.

바투타, 시원하고 열정적인 타악 퍼포먼스로 100주년 축하해

바투타 여성 4인조 타악팀

처음 유관순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인원과 큰 규모의 행사에 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YWCA 창립100주년 감사축제 난타공연이었다. 무엇보다도 전통과 역사가 깊은 단체라 어린 학생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려 함께 축하하고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 팀명 ‘바투타’의 뜻은 이태리어로 ‘두드려라, 북을 치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 여성들로만 구성되어있는 타악퍼포먼스팀으로서 동양의미를 추구하는 여성대표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YWCA 단체와도 잘 어울리는 팀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무대공간과 조명연출, 방송촬영영상, 스태프분들까지 모두 퀄리티있게 잘 준비해주어 타악퍼포먼스 공연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 곡 끝날때마다 아낌없는 박수와 멋지다는 환호성으로 환대해 주시고 공연이 끝난 후 나갈 때에도 난타공연이 멋지고 좋았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들을 여럿 뵈면서 다른 때보다 더 열정이 넘치고 팀원들 모두 뿌듯해하며 기분 좋게 진행한 난타공연이 아니었나 싶다.

앞으로도 YWCA가 한국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여성단체



① ② 대전DMC어린이합창단 ③ 바투타 타악팀의 공연 ④ 충주YWCA찬무단

로서 올바르게 정의로운 여성의 본질을 일깨우고 사회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있는 단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축제에 난타공연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릴 통해 하실 일 있다’ 확산 온맘과 정성 다해 찬무한 시간

충주YWCA찬무단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금! 한국YWCA창립 100주년 감사축제라는 역사적인 날이 우리 세대에서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스럽다.

더군다나 감사축제의 무대에 부족한 충주YWCA 찬무단이 축하의 무대를 장식한다는 것은 더 없이 영광스러운 기회였기에 부담감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기로 단원모두의 마음을 모았다.

연합회에 제안을 제출 후 확정된 날부터 강사님과 함

께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느 때보다 더 열심히 연습에 임하였다. 좁은 연습실은 큰 깃발을 흔들며 찬무하기엔 장애가 너무나 컸기에 인적이 드문 새벽 야외공원에서 연습하는 일정도 잦았다.

드디어 감사축제의 날, 혹, 약속된 시간에 늦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행사장에 도착하여 마주한 행사장의 규모는 우리들을 더 부담으로 몰았다. 축제장소에서 다리를 다쳤던 한 단원은 공연 중엔 ‘아픈 줄도 모르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다’는 고백으로 모두를 다시 감동케 하였다.

이름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한국YWCA 100년의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 충주YWCA찬무단이 사용됨은 더 없이 감사한 일인데 그 단원이었던 나는 너무나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주님을 영원히 품으로 노래하리라.

청소년의 목소리로 만드는 기후운동을 위해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기후재난을 마주했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제 4차 YWCA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이 열렸다. 10월 5일(수) 온라인 줌에서 열린 본 콜로키움에는 31개 회원YWCA와 연합회 실무자 총 76명이 참석하였다. 이은영 RE100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강의에는 '청소년 기후운동'이라는 주제와 같이 청소년 기후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첫 순서는 성대골 마을달살림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의 강의, '지구적 생각 지역적 실천 성대골 에너지전환 운동 :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으로 2050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함께 청소년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활동을 공유했다. 김소영 이사장은 2008년부터 마을운동을 시작하며 2010년 초등학교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설립을 위해 힘쓰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성대골에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이슈로 지역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갓난아기부터 107세 까지 다양한 세대와 탈핵,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등으로 동네에서 노는 방법을 고민했던 지난 11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히 공립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합과, 청소년 당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청소년이 참여하는 마을 연구원 등의 청소년 기후운동과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성대골 에너지 축제를 중고등학생 기획단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수원YWCA 변남순 팀장의 강의로 현재 수원Y-틴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운동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유엔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역에 맞게 변경한 수원형SDGs(에너지, 생물다양성, 물, 먹거리, 일자리, 소비와 생산, 시민복지, 성평등, 도시문화, 협치)를 기반으로 기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YWCA는 Y-틴과도 이 수원형 SDGs 열 가지 목표에 대해 주제를 잡고 활동을 꾸려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소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BTS의 SDGs에 대한 소개를 활용하고, 환경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메타버스, 온라인 교육의 장을 활용하며, 플로깅과 열지도

그리기 사업, 청소년 제로웨이스트 데이, 지역연대행사와 함께 했던 어린이날 행사 : 몸으로 배우는 환경교실, 청소년 에너지 공감캠프 등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의 강의,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기후정의운동'이 이어졌다. 2018년, 작은 모임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행동을 시작하며 만들어진 청소년기후행동은 전국 40여개 지역, 약 500명의 구성원, 구성원의 약 90%가 10대 청소년,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이 연결된 느슨한 네트워크형 조직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생각이 없는 정부와 기업을 보며,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청소년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고민하면서 만들어 온 연대와 시위 등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김보림 활동가는 얘기했다. 부실한 정부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해 고발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현장을 밝히고,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당사자 삶을 고려한 1.5도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정치와 기업에게 구체적 탄소배출 책임을 요구해 왔던 지난 활동사례들을 공유한 김보림 활동가는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고 운동의 주제로서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권역별로 흩어져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리 지역과 각 Y-teen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기후운동을 공유하고 Yteen 주도의 기후위기대응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2022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은 11월 2일(수) 마지막 회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지난 강의들은 Y-아카데미(<http://ywca-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 위기 대응 실천 행동으로 청소년 제로웨이스트데이 행사 벌여

변남순

(사)수원YWCA 팀장

지난 8월 20일(토) 수원YWCA 회관이 들썩들썩 했다.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Y-틴과 함께 청소년 제로웨이스트데이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몇 해만에 청소년들과 한 공간에 모여 신체 활동을 하고 함께 교육을 듣고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 문득 불과 몇 달전 비대면으로 만났던 Y-틴 인준식이 생각났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청소년 웃음소리 대신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던 메타버스 공간이 떠올랐다. 사람은 역시 만남으로 소통해야 하는 걸 느꼈다.

우리는 지난 몇 년동안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교육과 회원 활동을 비대면으로 강제 전환 해야 했고 '안전' 이 최우선시되는 청소년 활동에는 더 강화된 지침을 준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활동은 매우 중요했기에 비대면 문화에 힘겹게 적응해가며 비대면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고 나름 전문 유튜버와 경쟁하듯 지금까지 꾸준히 공유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 최근, 현장의 교육 상황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의 비대면 생활 습관으로 사전 준비와 이동 시간 단축이 장점인 온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에게선 비대면 문화를 넘어선 획기적이고 흥미있는 대면 문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전국YWCA를 비롯해 권역YWCA와의 소통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YWCA를 찾아오게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올해의 Y-틴 중점운동도 작년과 동일하게 기후위기다. 그만큼 기후위기의 절박함은 사회 이슈가 되었고 그 대응으로 민관이 서둘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을 선언하고 있다. 코로나의 현실이 극복되기도 전에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하고, 현재는 정의로운 전환까지 고민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이 생소한 단어들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YWCA는 청소년 활동과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접목하여 Y-틴 활동 계획안을 만들어 각 학교에 전달하였다. 교육계에서도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동참하기로 한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학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Y-틴 첫 만남의 시간에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와 활동 목표를 알아 보았고, 이 시간에 UN의 홍보대사인 BTS의 홍보영상은 청소년의 관심을 높였다. BTS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Y-틴 모두에게 일명 'BTS 배지' 라는 17개의 알록달록 색이 담겨있는 UN SDGs 배지를 나눠 주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수원시는 특별하게 수원형 SDGs를 만드는 작업을 몇 년 동안 진행하였다. UN의 17개의 목표를 10개로 함축하였으며 그 활동에 수원YWCA가 함께 하였다. 크게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로 작게는 에너지, 물, 생물다양성, 먹거리, 일자리, 자원순환, 사회복지, 성평등, 문화, 주민자치 등의 작업이었다. 이 주제를 기후위기와 연계하여 교육안을 짜고 4개의 학교 Y-틴을 만났다. 우선은 대학청년Y를 교육하여 Y-틴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때로는 전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였고, 실천 활동을 증진시켰으며 무엇보다 청소년 환경감수성 향상에 노력하였다.



① 청소년 제로웨이스트데이 ② 학교밖 청소년기후행동 'STOP지구온도 1.5 플로깅' ③ 학교내 청소년기후행동 '내일은없다 캠페인'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문제의 지역적 불평등을 함께 고민하였고 무엇보다 내가 살고 있는 수원의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STOP! 지구온도1.5도,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절약하기, 하천오염줄이기, 로컬푸드이용하기, 면생리대만들기 등의 주제별 활동을 함께 하였다.

지속적인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이끌어 내었고, 학교 내 기후위기 대응 '지금 당장, 내일은 없다' 캠페인과 '탄소중립 운동회'를 학교 축제 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에너지 팔씨름, 환경파괴 볼링, 자원순환 제기차기 등을 진행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눈높이 메시지라는 것과 청소년 스스로 생각해 냈다는 점에서 무한 칭찬이 과하지 않았다. 이밖에 학교밖 청소년 활동으로 환경,경제동아리를 모집하여 수년간 7,8월 '열지도 그리기' 활동을 하며 도시의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현상을 알아가고 있으며, 플로깅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경활동을 벌이고 있는 Y-틴 활동이었

기에 '기후위기비상선언'이라는 경기도민 청원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여 성장한 Y-틴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사회적 이슈를 알리고, 지구 온도 1.5도의 의미와 기후 위기 대응 실천 행동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함께 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활동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Y-틴이 알게 되었다. Y-틴들은 이 과정에서 공교육에서 배우고 느낄 수 없는 시간을 YWCA라는 학교 밖 공간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감수성을 개발하고 있기에 청소년 담당활동가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먼 훗날 청소년들이 YWCA와 함께한 청소년기후행동들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이에게 다시 그 경험을 나눈다면 더없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 것이다. 청소년들과 서로 공감하며 언제든 편하게 찾아 올 수 있는, 청소년기후활동으로 오래 기억되는 시공간의 장소인 수원YWCA가 될 것이다. ♡

성명서

| Y-틴 청소년 기후행동 |

세계 청소년 기후 행동일 9월 23일
'우리의 요구 100인 성명'을 발표

한국YWCA연합회의 청소년 Y-틴이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Y-틴 청소년 기후행동 - 우리의 요구 100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을 위한 서명 캠페인은 스웨덴 고등학생인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로 시작된 세계 청소년 기후 행동일인 9월 23일(금)에 맞춰 9월 16일(금)부터 23일(금)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2개의 회원YWCA(김해,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세종, 순천, 안양, 안산, 여수, 울산, 인천, 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통영, 포항)의 대표 청소년 104명이 참여하였다.

'우리의 요구' 100인 성명

Y-틴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생명, 정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선배 세대와 기업, 정부, 전 세계에 요구한다.

하나, 선배 세대는 기후 위기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 선배 세대는 청소년의 모범이 되어 앞장서서 행동하라.

하나, 기업은 그린워싱을 멈춰라. 기업은 적극적으로 또한 진실되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방법을 찾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이윤과 성장이 아닌 시민과 지구 생명들의 권리를 우선순위로 두어라. 정부는 핵발전소 건립 및 운영을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상용화에 힘쓰고 생태계 보전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전 세계는 기후 위기의 현실을 인정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2년 9월 23일

한국YWCA 청소년 Y-틴

강건희(청주YWCA), 강도엽(포항YWCA), 강민하(목포YWCA), 강은지(인천YWCA), 강지수(목포YWCA), 곽은빈(마산YWCA), 구화중(안산YWCA), 권희주(목포YWCA), 김가윤(여수YWCA), 김규리(대구YWCA), 김대윤(대구YWCA), 김민하(진해YWCA), 김보경(청주YWCA), 김보연(여수YWCA), 김수안(목포YWCA), 김수연(인천YWCA), 김예은(순천YWCA), 김유진(청주YWCA), 김태하(여수YWCA), 김태희(서울YWCA), 김하늘(안산YWCA)김현서(목포YWCA), 김혜진(인천YWCA), 김환희(전주YWCA), 김희성(전주YWCA), 나하은(목포YWCA), 남경희(세종YWCA), 노은진(안산YWCA), 류예원(청주YWCA), 문서빈(청주YWCA), 박규림(청주YWCA), 박민서(청주YWCA), 박선영(대구YWCA), 박세은(안산YWCA), 박수정(청주YWCA), 박연서(안산YWCA), 박예원(동해YWCA), 박예원(동해YWCA), 박윤영(목포YWCA), 박은심(청주YWCA), 박희진(서울YWCA), 배서현(청주YWCA), 백서현(포항YWCA), 서고원(안양YWCA), 서유람(인천YWCA), 손재윤(포항YWCA), 손현진(통영YWCA), 송다연(청주YWCA), 송명진(마산YWCA), 심미소(청주YWCA), 안은비(목포YWCA), 양채림(서울YWCA), 우성무(순천YWCA), 유은수(울산YWCA), 유은지(울산YWCA), 유종민(천안YWCA), 윤서준(포항YWCA), 윤서현(포항YWCA), 윤성준(포항YWCA), 윤연경(인천YWCA), 윤희경(청주YWCA), 이다희(여수YWCA), 이미르(안산YWCA)이선우(대전YWCA), 이예진(청주YWCA), 이에찬(순천YWCA), 이원희(세종YWCA), 이은우(목포YWCA), 이은우(대전YWCA), 이채은(부산YWCA), 이하은(청주YWCA), 이현성(전주YWCA), 이현지(창원YWCA), 임아빈(안산YWCA), 임은규(순천YWCA), 장아영(목포YWCA), 장윤희(창원YWCA), 장은지(목포YWCA), 전보민(청주YWCA), 정다슬(목포YWCA), 정세빈(안산YWCA)정재원(전주YWCA), 정주림(포항YWCA), 정현준(창원YWCA), 조서연(청주YWCA), 조아림(청주YWCA), 조영광(창원YWCA), 조하진(서울YWCA), 주예나(서울YWCA), 진소영(김해YWCA), 최선희(목포YWCA), 최원서(대구YWCA), 한결(진해YWCA), 한다인(안산YWCA), 한세미(대구YWCA), 한예원(청주YWCA), 허서연(청주YWCA), 허지선(청주YWCA), 현수아(청주YWCA), 현하리(여수YWCA), 홍선희(울산YWCA), 홍수아(청주YWCA), 홍수연(포항YWCA), 홍정희(울산YWCA)

기후정의는 곧 젠더정의!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부소장

여성에게 가중되는 기후재난의 피해

올여름 전 지구가 기후위기 재난으로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파키스탄은 홍수로 인해 전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믿기 힘든 재난을 겪어야 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기후위기가 재난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그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에게 재난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훨씬 크다. 게다가 이 모든 취약성이 중첩된 사람, 말하자면 가난한 노인 여성이거나 가난한 소녀, 가난한 1인 가구 여성들에게 닥쳐온 재난의 파괴력은 헤아릴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재난에 적응하여 다시 삶을 회복하는 과정들은 지난하기 이를 데 없다.

파키스탄의 전국토를 집어삼킨 대홍수로 인해 사망자만 해도 15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1000명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이라고 한다. 재난 시에 여성들의 사망과 피해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이 처한 낮은 경제적 지위, 불평등한 교육기회와 낮은 정보 접근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어린이와 노인을 돌봐야 하는 다중의 돌봄 역할이 커다란 이유가 된다.

재난 시,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가난한 여성들은 재난 발생장소에서 고립되기 쉽다. 더군다나 대피할 곳이나 지원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어 아이를 업고 노인의 손을 붙잡은 채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쉽다. 그뿐만아. 남성들 허락 없이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가부장제 이슬람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남편을 기다리다 속수무책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파키스탄 홍수 때 뿐만 아니라 해마다 동

남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한 기후변화 쓰나미와 지진, 태풍, 홍수 피해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이동의 제한을 받는 성차별적 문화 속에 제때에 피난하지 못해 더 많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성차별 구조의 결과

기후위기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을 일컬어 '재난 취약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항상 재난에 '취약한' 존재로 여겨진다.

사실 여성이 경험하는 재난 취약성은 단지 사망자이나 재산 손실과 같은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난이 발생한 장소는 곧 신체적 안전도 위협당하는 곳이 되기 쉬워 여성들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피해를 입기 쉽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훼손당한 아프리카 소녀들이 물과 빨감을 구하기 위해 몇 십 킬로를 걸어다니느라 간신히 얻은 교육기회마저 잃고, 먼 길을 걷는 도중에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넘게 대피소와 임시주거지에서 여성들이 반복하여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 있다가 어렵게 드러난 사실도 NHK 다큐를 통해 알게 되지 않았는가.

여성들의 위생과 건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위태하다. 임신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도 어렵고 생리대나 피임약과 같은 필요도 제대로 충족되기가 힘들다. 이뿐 아니다. 재난에 대한 구조와 지원에서도 여성들은 소외된다. '남성 가구주' 중심의 지원책은 일상적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삶을 다시 일구는 여성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불



<Photo: DeSmog.com>

평등한 사회에서는 일자리도, 지원금도, 각종 지원책도 '남성 먼저'로 이루어진다.

여성이 재난에 취약해진 이유는 사실 '젠더 불평등',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결과'이지, 여성이 본질적으로 취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받는다면, 여성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자유롭게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면 여성에게 가중되는 재난 피해는 훨씬 적어질 것이다. 여성에게만 대가 없이 전가되는 '돌봄'이 한 사회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재난 시에도 약자에 대한 책임을 남성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 여성이 돌봄의 책무로 인해 더 위험에 빠지거나 피해를 더 입는 상황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성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여성의 복장을 강제로 규제하고 여성의 신체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차별적인 문화가 없는 사회라면 재난으로 인해 여성의 고통은 증폭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으로 인해 여성의 피해가 증폭되는 것은 자연재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얼마나 공고한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후정의 실현은 젠더정의로부터

탄소배출의 책임이 큰 집단이 혜택을 독점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탄소배출 책임이 적은 사회적 약자들이 입고 있는 이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을 이른바 '기후정의' 실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후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러한 부정한 상황에 분노하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성차별한 구조 속에서 재난에 취약하지만 사실 재난에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러한 재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바꾸는 능력, 즉 '적응역량'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여성들은 돌봄노동을 비롯한 생활 속의 노동을 수행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닥쳐올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요구들은 사실 '여성의 과소 대표성'으로 인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여성들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남성대표자들이 재난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이른바 '엘리트 패닉'에 빠져 있을 때도 재난으로부터 삶을 복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즉 성차별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젠더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 재난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절실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부가 여가부 폐지라는 반시대적이고 부정한 결정을 내린 이 상황에서 젠더정의의 실현은 더욱 절실했다.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 오늘도 기후정의는 곧 젠더정의임을 외치는 목소리들은 점점 크게 퍼져나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시간: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차별 구조와 인식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10월 7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 본부에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맡아왔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 관련에 담당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115명 전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성차별 현실을 부정하라고 강요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취임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냈다. “젠더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갔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가부 정책들이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예산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현숙 장관의 발언들 하나하나가 문제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차별과 성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젠더갈등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현실을 감추고, 남성 기득권을 지속하기 위해 남성정치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정치적 수사일 뿐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옹호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여성의 고용률은 51.2%로 남성 고용률(70.0%)보다 18.8% 낮았고, 여성은 임신·출산·육아로 30대에 경력단절을 겪는 상황(M자 곡선)이 지속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9.8% 수준이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았다. 가정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19년 통계청이 실시한 ‘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인 반면, 남성은 46분으로 한 시간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났고, 과도한 돌봄노동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어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현실 또한 변함이 없다.

객관적 지표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고, 이것이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 조직과 정책 전반이 (성인)남성을 기본값으로 전제하고 운영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젠더관점에 기초해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을 고려해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7개 부처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이다. 개혁이 필요한 대상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나머지



민화하고 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보고도 인식을 바꾸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다. 이는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여성을 삭제하는 것이

17개 부처이고, 여성가족부는 허구적인 젠더갈등 해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차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은 없고, 젠더갈등만 있다고 믿는 것은 무지이거나 망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갖거나 조직의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장관급(여성가족부) 조직을 차관급(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한 강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한국 민주주의 붕괴의 신호탄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단기적 이유는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의회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와 통합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시시때때로 여성가족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 여전히 성차별주의(sexism)를 용인하는 사회이고, 이를 통해 남성이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정당 내 (남녀 불문) 수많은 정치인들이 성차별주의를 내

다. 더 나아가 그동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약육강식 논리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 많은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리 없으며, 이는 소수만이 부유하고 자유로운 비민주주의 사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이용해 당선된 독재자는 민주적 제도를 합법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를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여성 주권자의 저항권을 발동할 시간

영국의 정치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종속> (1869)에서 과거에 당연시 되었던 노예제도와 계급제도도 폐지되었는데 ‘여성의 종속’만 계속 유지되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평등의 원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 1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세계는 오지 않았다. 그만큼 성차별 구조와 인식의 뿌리는 깊고 견고하며, 여성의 투쟁과 저항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여성은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저항할 권리도 갖고 있다. 여성의 존재를 지우고 여성의 주체성을 억압하려는 정부에 저항권을 발동할 시간이다. 

플랫폼에 갇히다

| 대학·청년YWCA

지난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며칠간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업무는 물론 일상에도 큰 불편함을 겪었다. 평소 카카오톡 단체채팅으로 청년토크를 진행하던 우리도 당시 이 문제를 직접 겪었다. 이번 청년토크는 카카오톡 오류로 인해 다른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으로 진행됐다.

일시적인 오류입니다

하늘 : 청년토크하다가 갑자기 너네가 사라져서 깜짝 놀랐잖아.

분홍 : 그러니깐. 나는 내가 뭐 말실수했나 했어.

초록 : 한시간 정도는 카카오톡 오류인지도 몰라서 노트북 고장인줄 알고 멘붕이었어.

민트 : 나는 카카오톡 말고도 메신저는 많으니깐 별로 불편하진 않았어. 근데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못 사용하는게 훨씬 더 불편하더라.

하늘 : 맞아. 나는 그날 집에 못 갈 뻔했어. 그날 카카오톡에서 자동결제를 못해서 계좌이체하려니깐 카카오뱅크도 안돼서 진짜 난감했더니깐.

초록 :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하늘 :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기사님께 계좌이체 해드렸지. 그 덕에 오랜만에 엄마랑 전화한 것 같아.

얼마나 자주 활용해?

분홍 : 나는 집순이라 취미생활도 거의 집에서 하는데 웹툰

도 안되고, 음악도 못듣고, 브런치도 못보고 주말내내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민트 : 이번을 통해서 카카오가 생각보다 더 많은 분야를 독점하고 있구나 생각했어. 오죽하면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오류가 국가재난알림으로 등장하겠나고.

초록 : 좀 신기하긴 하더라. 재난알림에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뜨는데 며칠 사이에 카카오톡 오류랑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나오는 것도 참 웃프더라.

분홍 : 요즘 애들 사이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못 사용해서 불편했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유행이야.

하늘 : 나도 봤어. 카카오 오류로 인해 업무를 못 끝낸 사람, 애인과 싸우다 대화가 끊긴 사람, 기프트콘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밥 다 먹고 결제를 못하는 사람, 생일인데 기프트콘 하나도 못받은 사람, 카카오톡 오류가 생긴 지도 몰랐던 사람 중 누가 제일 불쌍한지 고르는 콘테스트도 등장했더라.

대형플랫폼 공화국

민트 :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카카오 공화국인 것 같아.

초록 :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의 역할을 완전 독점하고 있었지.

분홍 : 한국인의 91.8%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

민트 : 독점력이 강해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점점 더 제한될 거야. 너희도 다 그러지 않아? 같이 묶어서 쓰면 할인을 더 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편하니까.

초록 : 너무 편리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고 있으니 다른 플랫폼을 더더욱 못쓰게 되는 거지.

하늘 : 편리한 건 좋아. 근데 원래는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나중에는 돈을 받고 제공하고, 프리미엄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띄우잖아. 그런 거 보면 가끔 정떨어져.



분홍 : 프라이버시 침해우려도 있어. 너무 다양한 곳에 카카오나 네이버로 로그인되어 있어서 플랫폼이 내 행동패턴을 전부 분석하는 것 같아. 알고리즘이 너무 무섭다니깐.

초록 : 진짜 휴대폰이 내 대화를 다 듣는 수준이라니깐.

분홍 : 그래. 나도 이번을 계기로 갑자기 개인정보가 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카카오 사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늘 : 몇 년 사이 카카오 서비스가 많이 생기면서 진짜 편해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번에 먹통이 되는 순간 조심해야겠다고 각성했어.

민트 : 몇 시간이면 복구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심각했나봐. 며칠이 지난 지금도 안되는 서비스들이 많더라고.

초록 : 나는 오히려 하루 동안 강제로 연락을 못하니깐 해방된 느낌이기도 했어. 주말없이 일하는 사람인데 반강제로 연락이 끊겼더니 오히려 좋더라.

분홍 : 나는 일상이 블랙아웃 되는 느낌이었어.

초록 : 어떻게 보상해주려나? 무료로 썼는지, 돈을 내고 썼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것 같아.

하늘 : 지금 검색해보니깐 정기결제된 이용한 사람들한테는

이용권 3일 연장해주고, 웹툰도 열람 기한 연장, 택시기사들과 키보드 이용자들도 요금 조정해준대.

분홍 : 무료 이용객들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대.

플랫폼 규제 시작될까?

민트 :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도 플랫폼 시장의 독점에 대해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어.

초록 : 맞아. 매번 시장의 자율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번 의견은 의외였어.

하늘 : 전 정부때도 온라인 플랫폼 공경화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잖아.

분홍 : 온라인 플랫폼 공경화법이 뭐야?

하늘 : 온라인 플랫폼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수수료, 광고비, 소비자 불공정거래 등의 이슈가 많아지면서 나온 법이야.

민트 : 생각해보면 요즘 잘나간다고 하는 회사들은 거의 플랫폼 회사야. 코로나 이후로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진 것 같아.


초록 : 그치. 그럴수록 관련된 법이나 독점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할 것 같아.

하늘 : 성장에만 몰두해서 계속 문어발식으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면 작은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전국민이 불편함을 느낄거야.

민트 : 2023년부터 디지털세 시행하는 거 알지? 구글세라고도 하는데 구글 같은 글로벌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세금 징수래.

초록 : 나도 들어봤어.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같은 디지털기업은 법인세가 싼 나라에 사업장을 두고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더라고.

하늘 :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됐으니 플랫폼의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생긴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

분홍 : 정부에서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함께 지켜보자. 

1) 온라인 플랫폼 공경화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토록 짝 찬 여성 서사 <작은 아씨들>

| 오수경

청어람 대표

드라마 <작은 아씨들>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루이자 메이 올콧이 쓴 동명의 소설처럼 네 자매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다가 “가난하지만 우애 있게 자란 세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맞서는 이야기”라는 소개 글을 읽고 ‘아 그 이야기보다 더 강렬하겠구나’ 짐작했다.

<작은 아씨들>을 만나는 몇 갈래의 길

<작은 아씨들>은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드라마에 이르는 길은 저마다의 경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작은 아씨들’을 만나는 몇 갈래의 길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가난’이다. 정서경 작가의 전작인 영화 <기생충>에서는 가난의 문제를 ‘냄새’라는 메타포로 풀었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태도와 감각, 습관 등의 문제로 풀어낸다. 인주와 인경이 동료들에게서 ‘왕따’를 당하며 사회에 제대로 섞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한 습성’ 때문이었다. 원령가의 딸이자 박재상의 부인 원상아가 인주를 자신의 연극 무대의 주인공으로 발탁한 이유와 인주의 선배인 화영이 인주를 복수 동료로 삼는 이유 모두 인주가 “가난한 주제에 희망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드라마에는 ‘가난’에 관한 다양한 메타포(구두, 코트, 아파트)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가난’은 고모할머니가 물려준 ‘영혼을 받아주는’ 한강뷰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고, 사라졌던 700억을 세 자매와 효린, 최도일이 평화롭게 나눠 가지게 된 후 어떻게 사유가 될까? 결국 그 돈은 누군가의 불행으로 축적된 불의한 돈인데 그걸 받아 행복해지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

가? “영혼을 받아주는” 곳이 꼭 한강뷰 아파트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세 자매는 결국 돈과는 무관하게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돈의 힘보다는, 자매애와 자존감의 힘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푸른 난초와 베트남 전쟁’이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푸른 난초인가?’ 싶을 정도로 푸른 난초가 의미 있게 자주 등장한다. 환각 기능을 가진 푸른 난초는 희귀종으로 알려진 꽃이다.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푸른 난초 나무가 있는 ‘원령가’는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곳이다. 푸른 난초와 원령가를 연결하는 키워드는 ‘베트남 전쟁’이다. 드라마는 ‘베트남 전쟁’으로 대표된 폭력과 국가주의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 사유한다.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불의한 전쟁에 투입된 하층민들이 국가에 의해 버려진 상태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푸른 난초’때문이었다. 그것에 취해 그들은 살아 돌아왔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악착같이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 정치를 활용하여 사회 곳곳을 지배하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공고히 한다. 국가에 의해 희생된 이들이, 더 큰 폭력으로 돌아와 가해자가 된 것이다. 작가는 이 세계의 세계관을 가진 이들을 살았으나 죽은 ‘영혼(원령)’으로 은유함과 동시에 호흡기에 의존한 채 목숨만 부지한 원기선 장군의 존재를 통해 ‘이미 죽었으나 아직 죽지 못한’ 상태인 가부장 체계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 큰 이야기는 결국 이미 죽어버린 폭력적인 가부장 체계를 어떻게 맞서고 탈출하는가의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키워드는 ‘달힌 문’이다. 달힌 문은 연극을 전공한 원상아가 유학 시절 만든 작품 이름이기도 하며 이 드라마에서 일어난 여러 살인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개념이다. 원상아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원령가’에서 건디지 못하고 비밀의 방에 갇혀 있다가 죽어 버린 엄마로 인해 비밀의 방의 안에 자신의 영혼을 가둔 채 미쳐버린 비극적 인물이다. 잔혹하게 죽은 엄마와는 다르게 “미친년”의 길을 선택한 원상아는 그 세계를 가장 탈출하고 싶어 한 인물이지만, 도리어 그 세계의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체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딸, 효린은 다른 삶을 선택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돕는 인혜와 함께 월령가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세계’를 탈출한 것이다. 결국 그 달힌 문에서 나오지 못한 원상아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문을 열고 간간 효린과 인혜는 살았다.


<작은 아씨들> 속 인물들은 겹겹이 ‘달힌 문’을 뛰쳐나와

서로를 구원하는 강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이 강함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나는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생각해봤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들로 구성된 ‘정란회’에 대항하는 이들은 서로를 위해 자신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목숨을 걸고 ‘염산 비’를 함께 맞으며 버텨기에 강할 수 있었고, 그 강함으로 그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즉, 힘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거룩한 희생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박재상의 부하 오 실장이 자꾸만 인주를 돕는 최도일의 감정이 사랑인지 확인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성애’와 ‘돈과 권력’으로 얽힌 관계만이 그럴 수 있는 동기가 되었을 테니까. 그러나 인주와 화영, 인혜와 효린, 인주와 최도일의 관계는 그 이상, 그 너머에 있는 관계였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하는 여성 서사

<작은 아씨들>은 ‘여성 서사’라는 키워드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세 자매, 인주와 화영, 인혜와 효린, 원상아와 오 실장 등이 이 드라마는 여성들이 이야기를 견인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여성들은 연민, 욕망, 분노 등을 두루 갖춘 복합적 인물로 그려졌다는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정서경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재현된 여성 캐릭터들을 보면 남성이 사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인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답고 착하고 경이롭고 선량한 존재가 아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 캐릭터를 그릴 때, 결함과 부족함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사랑받기를 바란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래야 캐릭터가 성장할 수 있다. 올바른 선택, 완전한 선택을 하는 캐릭터의 이야기는 시작할 여지가 없다.”

즉,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미디어가 반복 재현한 여성상을 다르게 사유할 수 있게 하며, 각자의 방식대로, 천천히 성장하고 연대하며, 폭력과 욕망이 지배하는 ‘아버지의 세계’를 탈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을 찾다

| 이슬기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3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 경진대회가 2022년 9월 3일(토)에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성평등, 기후위기, 평화통일을 주제로 공모 금융경제와 접목시켜 지역사회 변화 주도

제3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_경제편(이하 청만세)은 YWCA 중점운동인 성평등, 기후위기, 평화통일을 주제로 공모하였으며, 해당 주제를 금융경제와 접목시켜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서류 심사와 개회식, 중간보고회를 거쳐 8팀, 총 2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팀별로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토대로 예산 계획을 수립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7월 25일(토)에 진행한 개회식은 제2회 청만세가 개최되었던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진행하였다. 멘토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만큼 줌(ZOOM)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개회식에서 진행된 공평한숲연구소 유진선 소장의 특강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들이 현재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9월 3일(토)에 진행된 최종 대회는 한국YWCA연합회 원

영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원영희 회장은 “코로나와 공교육의 현장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많이 위축된 시기에 주체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개회사 이후 본격적인 경진대회가 시작되었다. 각 참가 팀들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정해진 발표 순서에 따라 발표를 진행하였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하여 ‘분리배출 QR코드 제작’ 프로젝트를 준비한 <기억코드팀>은 학교에서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분리배출 로고를 보완하는 ‘분리배출 QR코드’를 새롭게 제작하고 웹사이트와 연동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여 통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보드 게임을 제작한 <NEXT팀>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통일에 대한 인식과 책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다시 분단에 대한 문제점과 통일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실겉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멸종위기팀>은 평소에 동식물에 관심이 많던 중 기후위기가 동식물의 멸종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어 기후위기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실겉기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동식물 모형 틀에 실을 걸어보며 그들의 생김새와 이



NEXT팀, 멸종위기팀이 최우수상, 대상에는 기억코드팀이 수상

를 기억하며 소중한 생명이 기후위기 중요성의 망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생태 다양성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대상은 기억코드팀 수상

최우수상엔 NEXT팀, 멸종위기팀

이날은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 수상하였는데, 대상에는 기억코드팀, 최우수상에는 NEXT팀과 멸종위기팀이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멸종위기팀은 ‘청만세 활동이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기억코드팀은 청·만·세 활동을 통해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으나 청·만·세라는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한국YWCA연합회 함희경 씽크머니 자문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과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며 “해가 지날수록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의 이슈를 발견하고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위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며 마냥 어리개만 느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이미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만·세 제3회 대회는 끝이 났지만 계속 이어져 나갈 청소년들의 뜨거운 의지처럼, 100주년을 맞은 한국YWCA 또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YWCA 활동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청(소)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라!” YWCA RE100 기후정의행동 전개 및 선언문 발표

글·편집실

한국YWCA연합회는 9월 24일(토) 오후, 시청역 광장에서 태평로에서 펼쳐진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여, YWCA 전국동시다발 RE100 기후정의행동의 주장인 “이대로 살 수 없다. 청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라”를 힘차게 외쳤다.

연합회는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전국 400여 개 단체와 개인들 총 3만5천 여 명과 함께 고양Y, 울산Y, 부천Y, 성남Y, 세종Y, 수원Y, 의정부Y, 인천Y, 진주Y, 진해Y, 청주Y, 평택Y 등 전국 12개 지역YWCA와 연합회 활동가들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핵발전과 화석연료(석탄화력발전)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기후재난 속 돌봄 정의 구현을 촉구했다.

청(소)년, 여성, 지역시민의 입장에서 “생명에는 타협 없다” 외치

3시부터 진행된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본 집회 후 4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기후정의행진(태평로-광화문-안국역-종각역-을지로입구-남대문시장-태평로)에서 한국YWCA는 총 10대오 중 7대오의 선두에 서서 행진 중에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도로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펼쳤다.

이날 924 기후정의행진에 앞서 한국YWCA는 9월 한 달간 ‘YWCA RE100 기후정의행동’을 전개해 올여름 기후재난을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며 ‘924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국동시다발 캠페인 펼쳤다. 개인과 지역 그리고 전국이 함께하는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9월 기후정의행동으로 전국 29개 지역, YWCA RE100 기후정의행동 벌여

‘나부터 RE100: 기후정의 온라인 따잇기’는 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기후위기를 외치는 SNS캠페인으로, ‘9월 기후정의행동’의 연대로 진행되었다.

‘우리Y 기후정의 스크린&마이크’에서는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동해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속초YWCA, 순천YWCA, 안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의정부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청주YWCA, 춘천YWCA, 평택YWCA의 총 23개 지역에서 기후위기와 식생활의 관계를 다룬 오토 브룩웨이와 루도 브룩웨이의 다큐멘터리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Eating Our Way to Extinction)’를 상영, 지역시민들과 함께 기후대응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역Y 기후정의 기자회견’에는 군산YWCA, 광주YWCA, 남양주YWCA, 대전YWCA, 목포YWCA, 부산YWCA, 성남YWCA, 인천YWCA, 진주YWCA, 평택YWCA의 총 10개 지역이 참여하였는데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후정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는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400여 개 단체가 서울로 결집하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코리아



① 다이인(die-in) 퍼포먼스 ② 기후정의행진 7대오 선두에 선 YWCA ③ 회원Y 활동가와 피켓 ④ 한국YWCA 단체사진
⑤ Y나부터 RE100 ⑥ 회원Y 기자회견 ⑦ 회원YWCA 기후정의 영화상영

RE100행동’으로 정하여, 청(소)년, 여성, 그리고 지역의 자리로부터 9월기후정의행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YWCA 9월기후정의행동 참가선언문’을 발표했다.(참가선언문은 본지 57쪽 게재) 이 선언문을 통해 한국YWCA는 “핵발전 및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 실행, 그리고 관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

구했으며 기후재난 속 돌봄정의 구현을 촉구” 했다.

전국 52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YWCA연합회는 부정의한 기후재난 시대 정의·평화·생명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후정의운동을 각 지역에서 따로 또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젠더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를 추모하며 연대의 끈으로 피해자를 기억하다

| 이현주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9월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스토킹과 불법촬영과 같은 젠더폭력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YWCA와 기독교여성단체는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를 공동주최하여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9월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3년간 350여 회 이상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 하였으며 또한 역 구내에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바가 있다. 젠더폭력으로 인한 공포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발하였고 가해자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 뒤 가해자는 보복을 하고자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하여 신당역에서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유엔 규정,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는 명백한 젠더폭력

유엔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은 젠더폭력으로 구분되며 가해자는 명백한 젠더폭력을 행사한 성범죄자이다. 이 사건은 남성에 의한 구조적인 성차별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무한히 반복되는 여성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예방책 혹은 대안 없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YWCA는 젠더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동시에 가해자와 구조적 성차별에 함께 분노하는 자리로 기독교여성단체와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는 9월 23일 오후 8시에 시작되었다. 추모기도회 참여자들은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신당역 10번 출구 앞으로 모였다. 예배는 다윗이 자

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듯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재해석한 여성 시편 13편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현장의 발언에서 발언자로 선 NCCK 여성위원회 황보현 목사는 “여성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 노동할 권리, 사랑할 권리, 모든 권리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다. 나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다시 용기를 내고 서로의 곁이 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반성폭력센터의 춘풍 활동가는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4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나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한국 사회 내 젠더폭력 현실의 참담함을 토로했다.

장근지 연구원, “슬픔기억연대, 복이 있다.”

연대의 끈을 통해 피해자를 기억할 것

장근지 연구원(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교회협 여성위원회)은 예배소서 2장 1-10절의 성경구절을 통해 “슬픔·기억·연대, 복이 있다.”를 제목으로 말씀 퍼기를 나누었다. 그는 “피해자께서는 어두운 세상과 불의한 폭력 속에서 눈과 마음을 감지 않았다”며,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분의 믿음과 진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대의 끈을 통해 흩어진 목소리가 모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죽음이란 결코 사라



① 신당역 젠더폭력 추모기도회 ②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공간 ③ 한국YWCA 활동가 말씀봉독 ④ 파송과 공동축도

지거나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다시 생명이 되고 기억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매를 잃은 슬픔과 젠더폭력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모인 기도회는 고인을 기억하고 모인 서로의 곁이 되기를 다짐하는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특별히 파송 및 공동축도는 모두 일어나서 기도회에 참여한 모두를 향하여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축도로 진행되었다. 기도회를 마친 후에 참석자들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국화와 포스트잇을 가지고 추모 공간 앞으로 나아갔다. 각자의 방식으로 포스트잇에

피해자를 위한 위로의 마음을 적어 내려가거나 자리에 서서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YWCA는 젠더폭력에 반대하며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하며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번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에 한국YWCA는 분노하고 저항한다. 그러므로 한국YWCA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이들과 계속해서 연대해 나갈 것이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 글·편집실

“여가부 폐지야말로 차별을 구조적으로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별적,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평등, 적극적인 권리다”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구현’의 정책인 양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선량한 얼굴을 하고 여성을 보호의 영역에 가두려는 시도가 퇴행이다”
 “여성은 인구재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며, 가족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시민이다”
 “지금 우리가 막아내어야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가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대한민국의 정책 후퇴가 낳을 불행한 미래다”
 “한 사회의 평등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인구정책으로 덮어버리려는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10월 15일 토요일 2시 서울 종각역 2번 출구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여성·시민들 3,000여 명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에는 여성 인권을 볼모삼아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넘쳤다.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정부 부처인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난 10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을 규탄하는 이번 전국집중집회는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원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은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조직 개악이라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날 집회에는 각계각층의 여성·시민들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불러올 성평등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경고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 성매매경험당사자, 한부모, 여성장애인, 여성농민, 이주여성, 여성 청소년, 작가, 학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차별적인 현실과 경험을 토로하며 여성과 소수자 인권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집회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 고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등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안 철회 요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연대를 다짐했다.

한편 집회에서는 이소선 합창단과 소수자연대풍물패 ‘장풍’의 공연도 이어졌다. 



① 성평등 부처 강화 퍼포먼스
 ② 의정부YWCA 활동가 발언
 ③ 한국YWCA 깃대 행진
 ④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다
 ⑤ 한국YWCA 단체사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를 다녀와서

2030년, 제12차 총회는 열릴 것인가?

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2022년 8월 31일에서 9월 8일까지 9일간 독일의 남부 작은 도시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총회가 열렸다. 2013년 제10차 부산총회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WCC는 전 세계 약 6억 명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352개 교단이 서로의 교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며 가시적 일치를 이루려고 힘쓰는 에큐메니컬 운동 기구다.

앞으로 8년간 세계교회는

'정의와 화해와 일치'를 위한 순례길 걸을 터

이번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Christ's Love moves the World to Reconciliation and Unity)이다. 역대 WCC 총회 주제 중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화해'라는 말도 처음 쓰였다. 이 주제 선정의 기초가 된 성서구절은 고린도후서 5:14-20절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직분', 곧 '그리스도가 보낸 화해의 대사(大使, ambassador)'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또 중요하게 작용한 성서구절은 마태복음 9:35-36절이다.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구절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후위기로, 경제 불평등으로, 전쟁과 폭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로,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폭주로 온 인류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고생하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지치고 상한 무리를 공허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계가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랑'이나 '화해'가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진실을 가리는 값싼 감상적 호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총회 이전과 총회 중에 강력하게 제기됐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중요했다. 이번 카를스루에 총회에서는 원래 총회의 주제를

따라 다음 총회가 열리기까지 '화해와 일치의 순례'를 걷고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정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명칭을 '정의와 화해와 일치의 순례'(Pilgrimage of Justice, Reconciliation and Unity)로 확정한 것이다. 앞으로 8년간 세계교회는 이 정의와 화해와 일치를 위한 순례길에서 만날 것이다.

제11차 WCC 총회는 역대 어느 총회보다 커다란 위기감 속에 진행됐다. 과연 지구 위에서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묻는 시기에 열렸다. 인간이 생태계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8년 뒤인 2030년에는 제12차 총회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열렸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한 말은 충분히 했다. 신학적 성찰도 충분히 했다. 이제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는 인식에 모두 공감했다. 이런 인식으로 제11차 카를스루에 총회는 WCC 안에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Commission on Climate Crisis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구를 살리기 위한 10년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회개와 행동의 에큐메니컬 10년 운동

2030까지 'WCC 탄소발자국 제로' 선언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구를 만들기 위한 회개와 행동의 에큐메니컬 10년 운동'(Ecumenical Decade of Repentance and Action for a Just and Flourishing Planet)이 그 이름이



다. 이번 총회의 주요 선언문의 하나인 “살아있는 지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찾아서”(The Living Planet: Seeking a Just and Sustainable Global Community) 안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교회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결의를 담고 있다. 발췌해서 요약한다.

“더는 시간이 없다. 세계 기후 상황은 긴급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인간이 거주 불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걸 막는 마지막 기회다. 시스템과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신속하게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화석연료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신화석연료나 핵에너지는 결코 대안이 아니다.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의 탄소 감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한 삭개오를 모델로 한 '삭개오 세금'(Zacchaeus Tax)과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 군사훈련과 전쟁을 종식하여 이 비용을 기후 긴급상황에 사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녹색 해결'(green solution)이 가난한 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WCC는 2030년까지 'WCC 탄소발자국 제로'를 선언한다. 이를 위해 WCC 목적의 여행을 엄격하게 자제한다. 대신 온라인 회의를 강화한다. 생태신학의 연구와 교육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일차적인 피해를 받는 원(선)주민에 주목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회복해야 한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지난 300년 동안 서구의 탄소 문명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은 그 문명에 의해 정복당한 원(선)주민이다. 지금 그 지속가능하지 않은 탄소 문명이 무너지는 시기에 그동안 이 문명의 '변방'에 있던 원(선)주민들이 세계교회의 새로운 지도력으로 부상하고 약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원(선)주민 교회 지도자들의 약진은 이번에 새로 선출된 WCC의 중앙위원회 구성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150명 중앙위원 가운데 원(선)주민이 13%나 차지한 것이다. 이는 지난 부산총회에서 원(선)주민 중앙위원이 5%였던 것에 비하면 2.6배나 많은 것이다.

WCC는 15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면서 이 중에서 여성이 50%, 평신도가 50%, 청년이 25%, 그리고 원주민이 3%, 장애인 2% 이상 구성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목표가 달성된 적은 없지만,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청년, 평신도, 원(선)주민, 그리고 장애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 제도는 한국교회와 같이 나이 많은 남성 성직자들에 의해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독점된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지난 부산총회에서 여성은 중앙위원의 39%였는데, 이번 카를스루에에서는 41%로 소폭 상승했다. 청년은 13%에서 13%로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총회 폐막 전날, 청년 총대들의 항의시위가 있었다.) 평신도 상황은 더 나쁘다. 부산총회에서 32%에 달하던 평신도 중앙위원은 이번에 23%로 급감했다. 교회는 성직자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던가. 부산에서 2%이던 장애인 중앙위원은 이번에 3%로



소폭 상승했다. 그런데 부산에서 5%였던 원(선)주민 중앙위원이 이번에 13%로 대약진한 것이다. 이는 지난 300년 서구의 탄소-산업문명의 변두리에서 가장 고통받은 주변부가 이제 '변방으로부터의 선교'(mission from the margins)의 중심지로 우뚝 솟았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탄소 배출 세계 7위로 '기후 악당 국가'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런 세계적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력 변화를 잘 인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선언문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전쟁을 반대하지 않은 러시아정교회를 이번에 WCC에서 축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WCC의 역할은 서로 갈등하는 지역의 교회들이 대화를 위한 안전 공간이 되어주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세계를 분열시키는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더욱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WCC의 핵심적 역할임을 재천명하였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WCC역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선언문도 채택

이번 총회에서는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선언문도 채택되었다. 채택 과정에서 회원교회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시작은 성명서 초안이 나왔을 때 이 초안에 사용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벌어졌다. 아파르트헤이트란 원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을 가리키는 단어다. '분리', '격리', '배타', '차별 대

우란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 팔레스타인인을 분리, 격리, 배타, 차별 대우하는 것을 왜 아파르트헤이트라 부르지 못하느냐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자칫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 단어의 사용을 가장 반대한 총대는 이번 총회를 유치한 독일교회의 한 대표였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죄악을 저지른 독일의 한 교회 대표로서 자신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을 일으킨 반유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발언했다.

서로 갈등하는 교회들 사이에서 WCC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이 단어 사용에 있어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결속직하게 선언문에 기록하는 것으로 논쟁은 마무리되었다. WCC의 역할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이런 수습은 모든 교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약자를 편들지 않음으로써 결국 기존의 질서를 옹호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을 분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막상 구체적인 현안에 접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총회 현장에서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러시아정교회가 충돌하고, 이스라엘 교회와 팔레스타인 교회가 충돌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밤새 성명서를 고치고 또 고쳐 쓰면서

끝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WCC의 노력에 한 편으로는 경의가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입장도 내지 못하는 WCC의 협의체적 성격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요한 사우카(loan Sauca) 총무 대행은 총회 첫날 총무 보고에서 현재 세계교회가 성 소수자 문제로 분열하고 있다고 깊이 우려하면서,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한 후에, WCC는 오늘의 세계가 직면한 어떤 문제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며, WCC는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문제에 특정한 입장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WCC는 서로 다른 교리와 역사 그리고 배경을 가진 다양한 교회들의 '친교의 장'이라는 본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두 4개의 의사록 채택
정전협정 70주년, 2023년 7월 27일까지
1억 명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 포함**

WCC 총회는 성명서만이 아니라 의사록(minute)도 채택한다. 성명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참가자 다수의 결정으로 발표하는 문서이고, 의사록은 이와 달리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어떤 문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문서다. 이번 총회에서는 모두 4개의 의사록이 채택되었는데, 그중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에 관한 의사록도 채택되었다. 이 의사록에서 WCC는 모든 회원 교회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했다. ①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을 함께 지킬 것, ②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에 참여할 것, ③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통해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1억 명 서명운동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내년 2023년 7월 27일까지 받는 운동에 동참할 것 등이다.


제11차 WCC 총회 메시지(Assembly Message)는 “함께 행동하기로의 초청”(A Call to Act Together)이다. 참가자들은 코로나와 기후위기와 같은 세기말적 위기 속에서 무거운 분위기로 모였으나 성령의 힘으로 오히려 기대와 희망 나아

가 기쁨에 부풀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정의와 화해와 일치의 순례'를 떠나며 이 여정에서 모든 이들이 모여 함께 행동하자고 초대된 것이다.

일치 선언문(Unity Statement)도 같은 내용이다. '사랑'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에큐메니컬 운동이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an ecumenism of the heart)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의 제자직'으로 부르신다고 확인하는 일치 선언문은 이제 세계교회가 단지 “함께 머무름”(stay together) 뿐만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move together), 나아가 “함께(서로) 사랑하자”(love one another)라고 제안했다.

**제11차 WCC 총회 메시지(Assembly Message)
'함께 행동하기로의 초청'**

향후 8년간 WCC 프로그램의 총체적 방향성을 제안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세계교회가 “함께 움직여야”(move together) 한다고 강조했다. 움직이는 것은 곧 운동이다.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체다. 특히 예언자적 운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WCC는 단지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heart)일 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feet)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번 카를스루에 총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행동'이다. '발로 뛰는 것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말의 성찬(盛饌)은 끝났다.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더는 인간이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가 세계교회의 대표들을 사로잡았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성령의 은사였다. 과연 제11차 WCC 카를스루에 총회는 WCC의 마지막 총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2030년에 세계교회는 지구 어디에선가 제12차 총회를 열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절박한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를 핵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세계교회가 '정의와 화해와 일치의 순례'에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발로 뛰고, 함께 움직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한반도 통일과 개발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최수산나

(사)한국YWCA연합회 국장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EFK, 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이 9월 9일(금) 독일 카를스루에 복음감리교회에서 세계교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반도의 긴장된 상황 가운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이하 EFK)은 북한의 개발과 남북간의 교류 협력 증진,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여, 한국기독교협의회(NCCK)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 이하 조그련)과 더불어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그리고 각 국가들의 교회협의회와 교단들이 함께 하는 세계교회들의 연대조직이다.

1980년대 한반도 평화 통일 운동이 태동기를 맞으면서, 남북교회와 세계교회의 협력 하에 한반도 에큐메니컬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에큐메니컬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WCC의 주관 아래 남북 교회 지도자들이 초청되어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후 남북교회들이 동경과 평양 등에서 수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1995년 북한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국교회협의회가 6억원 이상의 모금을 북측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체는 2006년 북한의 사회개발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논의하는 세계교회의 공식 기구체로 발족하였다. 이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어려움 속에서도 2014년 8.15 평양 봉수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으며, 2015년에는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평양회의를 통해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대를 논의하고, 평화와 화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인권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에도 합의한 바 있다.

한국YWCA는 2018년부터 제네바 회의에 초청되어 참여하였으며 2019년 7월 방콕과 12월 심양에서도 회의를 통해

조그련과 만남을 가졌다. 심양회의는 2019년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교류가 중지되는 가운데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진행된 민간 회의이다.

독일 카를스루에 WCC 11차 총회를 이어 개최된 EFK

이번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은 북한의 조그련 관련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비공식적인 회의로 진행되었다. 조그련은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진행되는 WCC 제 11회 총회와 EFK 초청장에 대해 지난 해 이미 불참 의사를 밝혔기에, 이번 포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비롯한 미국장로교(PCUSA), 복음선교연대(EMS), 영국개혁신교회(URC), 캐나다연합교회(UCC), 일본(NCCJ), 독일개신교회(PCG), 그리고 청년 및 시민사회 관련 인사들만이 참석하였다. WCC 총무대행 요안 사우카(loan Sauca)는 서신 메시지에서, ‘팬데믹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카를스루에로 조그련 대표를 파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조그련 측으로부터 받았음을 공유하였다.

이번 WCC 11차 총회에서 결의된 “한반도 종전과 평화 구축에 관한 회의록(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은, 2013년 WCC 10차 부산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2013)을 채택한 후 세계교회들이 참여하고 수행한 평화이슈에 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 2023 평화 협정 캠페인으로 1억인 서명에 동참하고 세계교회와의 연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CC 피터 프루브(Peter Prove) 국장은 이 회의록 채택의 성과를 치하하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남북 교회와



세계교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지속 활동과 소망의 메시지를 공유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정식 구성원 이외에도 청년 및 시민사회 등에서 함께 참여하였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는 한반도 현 상황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담은 발제를 통해 국내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참여연대 황수영 팀장은 2023년까지 전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목표로 350여 개 국내외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현황과 각계 각층의 지지선언을 모으기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각 지역에서의 활동도 소개되었는데, 특히 캐나다연합교회(UCC)가 영상을 제작하고 1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필리핀 교회협의회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달한 성과 등도 공유되었다.


논의사항으로는 포럼의 운영과 방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주로 남북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청년층 에큐메니컬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사전 모임들을 진행하고 EFK 사전대회를 진행하자는 것과 남북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을 발굴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다양한 군축 및 비핵화 NGO, 유엔 관련모임 초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조직과의 접촉을 확장하자는 의견들도 덧붙여졌다. 무엇보다, 국내외 지역 교회가 한반도 평화의제를 더 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멀지만 가야할 일

이번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은 북측의 조그련 참여가 무산된 가운데 진행된 아쉬움이 있는 반면, 조그련의 불참이

예상된 상황 속에서 참여 인원 및 회의 체제를 확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다지는 계기를 삼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서 한국교회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발표, 1993년 남북인간띠잇기, 2016년 평화조약 캠페인, 2019년 4.27 민(民)+평화손잡기, 2019년 민의평화선언과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 활동들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교회들과 연대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지평을 확장해왔다.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확장을 위해 각 나라들의 교회들과 컨설팅이션을 열고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번 총회 기간엔 카를스루에에서 1천 여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성과를 가지기도 했다.

오랜 기간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다양한 층위에서의 협력이다. 교회가 사회적 지탄이 되는 뉴스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평화와 화해의 정신에 기반한 헌신의 행동들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남북교회 간의 연락선은 끊어져 있지만, 다행히도 여전히 세계교회와 북측과의 연락은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내년 7월 27일까지 약 9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2023년 30차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YWCA는 2019년 29차 세계YWCA 총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결의문을 제출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서명으로 단번에 평화가 도래하진 않지만, 만남과 연대의 과정 속에서 평화의 열매들을 경험한다. 우리가 겪는 작은 평화의 행동들이 큰 물결이 되어 반목과 갈등과 분쟁을 덮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WCC 11차 총회 청년 사전대회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총회가 진행될 때마다 소외된 주체들의 목소리가 총회에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해 2-3일 전에 사전대회를 운영한다. 올해 진행된 11차 총회에서는 총 4개의 사전대회, 1)여성과 남성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사전대회 2)선주민 사전대회 3)장애인 사전대회 4)청년사전대회(EYG; Ecumenical Youth Gathering)가 진행되었으며 각 사전대회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을 공식 메시지 문서로 작성하여 마지막 날 공동 발표 시간을 갖고 총회로 전달하였다.

각 사전대회는 총회 준비가 시작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특히 청년 사전대회는 2020년부터 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는데 준비팀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각 에큐메니컬 단체 및 교단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함께하였으며, 이에 세계YWCA, 세계YMCA,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WSCF), Act Alliance 등 기독교청년기관들의 대표와 WCC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준비과정에 참여하였다.

청년사전대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첫째로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관점이 총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는 청년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알아가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청년 사전대회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와 사회의 청년들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신다”를 주제로 3박 4일 간 주제 플레너리, 기도회, 워크숍, 문화의 밤 등의 프로그램과 논의된 내용들을 메시지에 담아내는 플레너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지난 회기동안 진행되었던 ‘정의와 평화의 순례(PJP)’운동 방식을 따랐는데, 성불평등, 기후위기, 우울/자살, 소수민족/선주민 억압, LGBTQ+, 총회에서의 청년대표성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필자는 가장 첫째 날 진행된 첫 주제 플레너리 진행을 맡았는데, 동시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회적 유산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보다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사미족(Sámi) 청년이 나누어주었던 ‘충분한 때를 아는(enough is enough) 지혜에 대해 깊




<Photo : Albin Hillert/WCC>



<Photo : Paul Jeffrey/Life on Earth Pictures>

은 감명을 받았다.

청년들이 나누어 준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청년사전대회의 메시지로 대체한다. 메시지를 통해 현시대의 에큐메니컬 청년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견인해가고 있는 현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청년사전대회 메시지

..... (생략)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각 구성원에게 선물로 주어진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지지합니다.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구어내는 선물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악한 세력과 어려움들,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체로서 몸의 상처를 인식하고 공동 기도를 통해 이러한 상처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만남, 이야기, 회복력의 직조를 통해 이러한 상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일어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받는 우리의 자매들,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위해 행동하고 함께할 것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상처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일을 위해 분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래 적혀있는 내용은 우리가 한탄하는 에큐메니컬 청년 모임에서 제기되었던 불의한 사례들입니다.

- ✦ 우리는 참석자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고통과 슬픔이 있는 모든 국가를 표현할 수 없음을 한탄한다.
- ✦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필레스타인과 같이 외국의 압제자들로 인해 살해, 폭력, 잔혹성, 여성과 어린이, 소녀에 대한 폭력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 인해 한탄한다.
- ✦ 우리는 서파푸아(뉴칼레도니아), 마오히 누이(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등 자국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싸우고 투옥된 사람들과 강요된 침묵과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빨간 꼬리표를 다는 행위와 비사법적 처형에 한탄한다.
- ✦ 우리는 중동, 많은 태평양 섬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기후 위기, 전쟁, 그리고 폭력적인 갈등과 억압으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강제 이주된 것을 한탄한다.
- ✦ 우리는 많은 국가들에게 부여된 패권체제와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들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봉쇄를 한탄한다.
- ✦ 우리는 이윤과 인간의 소비를 위해 바다를 비롯한 대자연의 붕괴와 파괴, 그리고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박해를 한탄한다.

- ✦ 우리는 이익을 위해 기후 위기 문제를 도구화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그린 워싱의 영향을 한탄한다.
- ✦ 우리는 사미족과 마사이족과 같은 선주민 조상들의 구역을 수탈하기 위해 새로운 "녹색 기술"의 명목으로 녹색 식민주의를 사용한 것을 한탄한다.
- ✦ 우리는 선주민들이 그들의 땅에서 강제 이주된 것과, 존경과 충분한 때 아는 것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지구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통과 정체성의 상실을 한탄한다.
- ✦ 나이지리아,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전 세계 신앙인들에 대한 종교적 편협성과 박해를 한탄한다.
- ✦ 우리는 인신매매, 강제 이주, 아동 노동, 성착취, 사형,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 그리고 이를 통한 문화와 언어의 파괴로 보여지는 인류의 비인간화를 한탄한다.
- ✦ 우리는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현대 노예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선주민 땅에 대한 요구를 통해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제도화되고 영속화된 것을 한탄한다.
- ✦ 우리는 교회공동체와 사회에서 LGBTIA+ 공동체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적 대우, 배제, 침묵하게 하고 낙인 찍는 것을 한탄한다.
- ✦ 우리는 가부장적 사회로 인해 영구화된 젠더폭력과 차별적인 성 규범으로 인해 인권이 부정되고 침묵된 수백만 명의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이 있음에 한탄한다.
- ✦ 우리는 성경 이야기나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증언에 있어 여성의 목소리와 참여를 인정하지 않음에 한탄한다.
- ✦ 우리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정책, 태만으로 인해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한탄한다.
- ✦ 우리는 정신 건강과 정신 질환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꼬리표 붙이는 것을 한탄한다.
- ✦ 우리는 교육, 경제적 기회,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과 다른 기본적인 필요와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 부족하도록 강요된 불공정한 시스템을 한탄한다.
- ✦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청년들에게 입힌 상처와 오늘날 응답해야 하는 교회의 침묵과 단일함을 한탄한다.

..... (후략)

서로의 아픔에 공감, 직면한 문제 해결할 지원군 얻은 시간

서다미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이번 11차 WCC 총회 전에 열리는 Ecumenical Youth Gathering, EYG에 참석하게 되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EYG는 202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렸고, 11차 WCC 시작에 앞서 이번 EYG에서는 회원 교회와 에큐메니컬 파트너 청년 400명이 모였습니다.


세계 많은 청년들은 교회 안과 그 너머에서 긍정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결정기구에서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배제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우리만의 대화 공간을 만들면서 사회, 환경, 정치, 경제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EYG가 만들어졌고, 이번 EYG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기후 위기, 인종차별, 구조적 경제적 불평등, 성차별 등 글로벌 및 지역 이슈를 다루고 있는 400명의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교회의 이슈 대응에 영향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EYG에서는 기도회, 예배, 주제 플레너리, 메시지 플레너리, 워크숍, 컬처럴 나잇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EYG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Y안에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Y만의 고민이 아닌 전세계의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전세계 사람들의 의견과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같은 고민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표정과 눈빛을 읽으면서 감정에 공감을 하였고, 젠더, 인종, 기후위기, 종교 등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는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던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로 포용, 관용, 이해심, 솔직함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안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함께 바라고 개인의 비전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고 청년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청년이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지원군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 Y 청년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깨달음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계를 말하고 듣고 넘는 곳, GETI

유에스터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뜨거운 별이 내리쬐는 독일, 전 세계에서 도착한 백여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왜 이곳에 모였는지 묻는 물음에 여러 대답들이 나왔다. ‘우리 지역을 넘어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 ‘다양한 자매형제 교회들을 만나고 싶어서’, ‘에큐메니컬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다른 피부색과 배경을 가졌으나, 에큐메니컬을 배우고자 국경을 시작으로 서로의 무수한 경계 역시 넘을 준비가 된 우리였다.

GETI(Global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

프로그램이란

GETI(Global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프로그램(이하 GETI)은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의 총회에 맞춰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에큐메니컬 청년세대의 네트워킹 공간 형성과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 교육에 목적을 둔다. 총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21-35세의 세계 모든 교단 신학생 및 목회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 이번 GETI은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전모임과 교육으로 모였고,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은 WCC 총회 장소인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에서 대면으로 만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WCC 총회의 의제와 관련한 주요강의들을 듣고 팀별로 흠어져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WCC의 중요회의 및 행사들을 참관하고 독일의 지역 교회들과 역사유적지를 방문했다.

- The purpose of God's love for the whole creation : reconciliation and unity
- Body Politics
- Affirming the wholeness of life
- Sharing Contextual Immersion
- Affirming justice and human dignity
-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I
- The bond of Christian unity and the churches' common witness

GETI 플래너리에서 진행된 강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GETI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계를 허물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는 WC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8개 지역, 다양한 그리스도교 전통의 스펙트럼에서 출발한 신학자, 목회자 및 신학생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가



GETI 그룹별 토론 <출처: Albin Hillert/WCC>



GETI 프로그램을 마치며 <출처: Albin Hillert/WCC>

능하다. 적어도 GETI에서는 교단 뿐 아니라 국적, 성별, 인종, 장애 등 여러 교차성을 가진 각각의 참가자 누구에도 다수성(majority)이나 특권(privilege)이 없다. 따라서 다양성이라는 당연한 전제 하에 우리는 모두가 청년이며, 배움에 열린 마음을 가졌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GETI는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 교육에 목적을 두면서, 청년, 젠더, 인권, 불평등 및 부정의, 기후위기, 생태과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에 관한 논의와 신학적 성찰을 나눌 수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살아 움직이는 신학교육의 장이다.

신학교육의 장, 경계를 말하고, 듣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GETI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해야만 했다. “나는 한국에서 왔고, 아시아여성신학과 생태여성신학에 관심이 있으며, 현재 한국YWCA연합회에서 탈핵기후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을 조금 보태어) 100번 정도 했다. 또한 아시아, 한국, 여성, 20대, 활동가 등 나의 자리에서 모든 토론의 장에 임했다. 따라서 나는 스스로에 대해 소개한 것만큼이나 타인이 누구인지 역시 끊임없이 들어야 했고, 타인의 자리와 배경을 이해해야 했다. 각자의 위치와 배경의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배움과 논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GETI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교육과 토론의 장에 시사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독교, 청년, 단일민족이라는 낡은 공통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스스로를 성찰하고 각자의 자리에 대해, 또 서로의 차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경계에 대한 논의를 묻어두고, 화해와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화는 누구에게 다수성이나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각자의 위치를 말하고 듣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선결조건 하에, 세계교회의 맥락 속에서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교육과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아래 사항은 WCC 10차 총회를 마치며 세계교회가 결의하고 정리한 내용 중 일부이다.

- 전 세계 350개 회원교회 약 4천 5백명 참석 “화해와 일치” 여정 마무리
- 창조세계 보존 위한 세계교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후정의’ 성명서 채택
- WCC 기후변화 위원회 신설, 가상회의 등 탄소줄이기 구체적 실천 제안도
-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제안’ 수용... “세계교회 한반도 평화구축 위해 함께 기도”
- WCC 중앙위원 150명, 총회 기간 대화 내용 기반 ‘연합과 일치’ 여정 계속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에 “평화와 (기후)정의, 화해와 일치”에 헌신하길 요청한다. 한반도 종전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수용하며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한 세계교회는 또한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훈련 및 헌신을 제안했다. 세계교회는 다음 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연합과 일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GETI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위 계없이 모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계를 허물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따라서 GETI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두 번째 지점은 한국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주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경계를 넘나들고 허문다.

WCC 제10차 카를스루에 총회의 특징 중 하나는 주제에 ‘사랑’을 표현했다는 점이다. 사랑에 관한 논의는 꾸준하게 있었지만, 총회 주제에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총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적이고 관례적, 제도적 및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 온 지난 관계를 뛰어넘어, 이번 총회는 사랑에 기초한 일치를 추구하길 천명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계를 뛰어넘는다면, 한국교회에 당연히 제안할 것은 우리의 경계에 말하고, 듣고, 인정하며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급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회원YWCA 재구조화 5개년 절반의 여정을 지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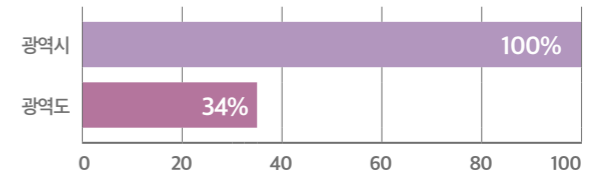
조직혁신지원국

한국YWCA 100주년은 회원YWCA 재구조화 5개년 계획이 시작되지 3년이 되는 해이다.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은 그간 한국YWCA의 오랜 숙제였던 회원YWCA와 연합회 중앙법인과의 복잡한 법적 구조의 개편과 지역중심의 운동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20년 의결되어 회원YWCA의 재구조화가 진행되었다. 회원YWCA 재구조화 5개년 계획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회원YWCA 재구조화 현황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전국 23개 회원YWCA(44%)가 지역법인 전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구조화를 위해 힘쓴 회원YWCA의 수고와 연합회의 지원 결과, 2022년 10월 현재 기준 전국 52개 회원YWCA 중 23개 회원YWCA(44%)가 법인설립을 완료하였다.

<그림2> 광역시도별 회원YWCA 법인화 진행 현황



<그림 1> 연도별 지역법인화 완료 현황



연도	개수	지역
2020년	7개Y	대구, 대전, 목포, 순천, 안산, 안양, 여수
2021년	7개Y	광주, 서울, 수원, 울산, 인천, 제주, 청주
2022년	9개Y	고양, 논산, 부산, 서귀포, 세종, 양산, 전주, 창원, 통영

광역시도별 법인화 진행현황

광역시 소재 회원YWCA는 모두 법인을 완료하였고,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도에서는 회원YWCA 법인 전환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

구분	회원Y 수	법인화 완료Y	회원Y	
광역시	8	8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광역도	경기도	12	4	고양, 수원, 안산, 안양
	강원도	5	0	
	충청북도	3	1	청주
	충청남도	3	1	논산
	경상북도	2	0	
	경상남도	9	3	양산, 창원, 통영
	전라북도	4	1	전주
	전라남도	4	3	목포, 순천, 여수
	제주도	2	2	서귀포, 제주

여성가족부 소관 지역법인 61%

회원YWCA는 법인화를 준비하며 각 회원YWCA 강점

1) 동해YWCA(강원도)와 포항YWCA(경상북도)는 2022년 4분기에 연합회에 법인승인 신청을 하여, 내년 상반기(2~3월중) 지자체 법인설립 허가가 예상된다. 그러면 각각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첫 번째 법인 설립 회원YWCA 사례가 된다.

과 약점 등의 현황분석 및 지역사회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회원YWCA가 법인화 이후 어떤 핵심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숙고하며 법인의 목적과 목적사업을 정하게 된다. 이는 회원YWCA 법인 준비의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 단계이자 법인설립과 관련된 주무관청과도 연결되는 사항이다. 23개 법인 회원YWCA 중에 9개 회원YWCA(39%)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14개 회원YWCA(61%)가 여성가족부 소관의 지자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그림3> 법인 회원YWCA 주무관청 현황

여성가족부 14 (61%)		행정안전부 9(39%)
구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광역시 특별시	서울Y, 세종Y, 울산Y, 인천Y	광주Y, 대구Y, 대전Y, 부산Y
경기도	고양Y, 수원Y, 안산Y, 안양Y	
충청북도	청주Y	
충청남도		논산Y
전라북도		전주Y
전라남도		목포Y, 순천Y, 여수Y
제주도	서귀포Y, 제주Y	
경상남도		양산Y, 창원Y, 통영Y

현재까지의 광역도 회원YWCA 법인화 특징을 살펴보면 도협의회 차원에서 함께 법인화를 준비하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법인이 완료된 회원YWCA가 있는 광역도내에서 법인 회원YWCA의 사례가 법인을 준비하는 회원YWCA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터라 현재까지는 광역도 단위로 주무관청이 동일하게 설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자체별 기본재산 요구액 상이

한편 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에 사전에 확인해야하

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본재산이다.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설정 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등 기본재산의 변동이 발생할 시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으로 회원YWCA 법인화 과정에서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본재산 기준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표1> 회원YWCA 법인화 과정 중 광역 시도별 기본재산 설정 요구액

기준액	지자체
0원	세종, 제주, 충남
1천만원	경남
2천만원	전남
3천만원	광주, 대전, 경북
5천만원	경기,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기타	서울(모든 부동산)

현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기본재산 설정금액은 위<표1>과 같지만 어떤 지자체는 협의과정에서 기본재산 설정액을 낮추주기도 했으며, 또 어떤 지자체는 기본재산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가 법인 창립총회 직전 모든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한 곳도 있었다.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 마다의 요구하는 범위의 차이가 큰 현실이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100%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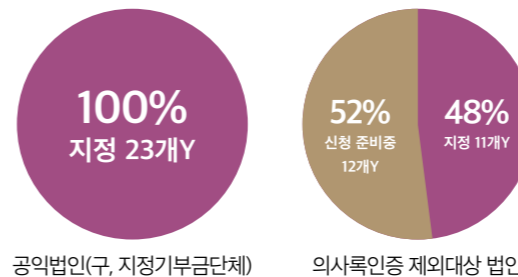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법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매년 개정되고 있다. 또한, 기재부의 공익법인 지정허가와 자격유지도 점차 까다롭고 어려워지고 있다. 공익활동 조직에서는 이렇게 강화되는 정부정책을 따라가기 어려워 차라리 기부금을 안받는데 낫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하지만 회원운동단체인 YWCA는 기재부의 공익법인 지정이 되어야만 후원하는 시민과 기관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제적격단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 법인화가 된 23개 회원YWCA 모두 기재부의 공익법인 지정을 무사히 받아 100% 지정 완료 되었다.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 지정 현황

사단법인은 등기를 진행하려면 관련 회의록 공증이 필요한데 이때 공증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회의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신청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절차로 지정되는데 많은 공익활동조직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고, 법인을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회원YWCA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도를 설명해가며 신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사록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을 위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지자체마다 추천기준이 상이하여 회원YWCA에서는 기준에 맞춰 다시 정관 변경이 필요해 총회 이후 추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공익법인 지정보다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이 완료된 회원YWCA 중 총 11개 회원YWCA(48%)가 법무부로부터 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림4> 공익법인-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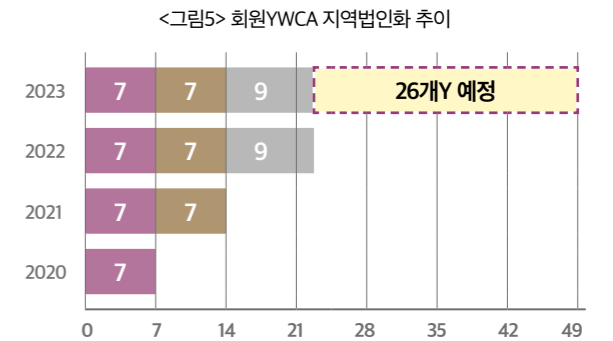
후원회 명의 재산이전 및 부속시설 이관·정비 진행중

후원회 명의로 있었던 회원YWCA의 재산은 부동산 매각추진이나 이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법인 회원YWCA로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부속시설의

경우 지정, 직영시설들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법인 회원YWCA로 이관해갔으며,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있다.

재산이전과 부속시설 이전이 완료된 법인 회원YWCA는 최종적으로 후원회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있는 중이다.

26개 회원YWCA가 2023년 법인 설립 준비 중



2022년 4분기에 연합회에 지역법인승인신청을 하는 곳은 거제Y, 김해Y, 마산Y, 사천Y, 진주Y, 진해Y, 포항Y, 의정부Y, 동해Y 총 9개 회원YWCA이다. 10월 4일에 연합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9개 회원YWCA는 11월 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거친 뒤 2023년 1월에 각 회원YWCA별 법인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월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고, 2월말~3월초에는 법인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4분기 법인 신청Y와 23년의 1분기, 2분기에 연합회에 법인 신청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회원YWCA를 포함하면, 2023년에 지역법인화를 완료하는 회원YWCA의 수는 최소 26개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원YWCA 재구조화 5개년 중 지난 3년간 설립된 지역법인 회원YWCA 수 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연합회에서는 앞서 법인화를 완료한 회원YWCA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 회원YWCA의 재구조화 전환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YWCA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추가하는 등 더욱 밀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YWCA 9월기후정의행동 참가선언문 |

정의·평화·생명을 위한 청(소)년, 여성, 지역의 자리로부터

기후재앙을 직면한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7월의 폭염 속 상하차 노동자는 사망했다. 8월의 폭우 속 주택과 거리, 차들은 물에 잠겼고 이를 미처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망했다. 아동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들을 돌보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9월 다시금 쏟아진 태풍 힌남노의 빗줄기는 포항에 큰 피해를 남겼고, 십 여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태풍은 시작일 뿐이다. 흑한과 폭설, 산불 등 기후재난은 해를 거듭하여 그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듯, 원전최강국이 되어 탄소감축으로 기후위기대응을 하겠다는 허 황된 정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재난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며,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반생 명적인 핵개발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탄소감축만으로는 기후위기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 기후위기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들 역시 '녹색성장'으로 겉포장만 바꾸었을 뿐, 진지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인류가 파괴시킨 기후가 불러온 재난은 우리의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발 딛고 있다. 무한성장주의, 과학만능주의, 자본 주의 경제체제는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그러했듯, 지구 역시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기후재난도 이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책 임이 가장 적고 가난한 자에게 가장 폭력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의 체제는 사회의 하층부를 침수시키면서, 더 높은 곳으 로 서둘러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는 올 여름 기후재난을 직면한 당사자 들의 자리에서, 애통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한국YWCA는 생명파괴적인 현 체제와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한 청(소)년의 자리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주체인 여성의 자 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지역의 자리에서 정의·평화·생명을 위한 기후정의행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 행진에서 핵발전 및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을 실행할 것과 관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또한 기후위기를 불러온, 기후재난이 심화시킨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 들에게 돌봄정부가 구현될 것을 요청한다.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2022년 9월 24일,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인다. 휘몰아치는 부정의한 기후재난의 거대한해 맞서, 한국YWCA 역시 생명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 두려움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이들, 다 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들 모두를 이 행진으로 초대한다.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만나는 생명세상이 올 때 까지 YWCA는 끊임없이 외치고, 시민과 함께 끝까지 걸을 것이다.

2022년 9월 20일
한국YWCA연합회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사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죄하라!

9월 14일 오후 9시 신당역, 또 다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지 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3년여 동안 스토킹의 위협을 견디던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법체계는 이 여성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렇게 또 다시 한 여성이 보복 범죄로 살해당했다.

우리는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낀다.

매년 5,000여 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이루어짐에도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 불완전한 법체계로 인 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 신변의 안전에 대 한 두려움, 자살 충동, 대인기피 등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기며, 신 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지속적인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피해자 보호 체계에 분노를 느낀다.

스토킹을 구애행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제를 고치지 않는 법무부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 단일한 태도에 분개한다. 가해자에 대한 통제가 극도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하려는 행태는 반복된 사례를 통해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 보호마저도 필요 인력이 충원되 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죄였다. 신변 보호 중 살해된 여성이 올해만 해도 4건에 이른다. 얼마나 많 은 여성이 죽음으로 이 처참한 상황을 호소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동안 단일하게 대처하며 피해자를 방치한 사법체계, 아직도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행위로 인식하는 입법 당사자들과 정치인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보복범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서울교 통공사에게 분노한다. 또한 여성 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성별대결로 문제를 비화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과 '여성혐오' 논쟁으로 사건을 번질시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사들 의 보도에 분노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뜻말이 붙어있는 화장실 안에서 또 다시 스러져간,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대처한 한 여성을 추 모하며,

한국YWCA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하고, 가해자 감시체계를 뜯어 고쳐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라
- 둘째,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대책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
- 셋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2인 1조 근무 등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2022년 9월 22일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를 위협으로 내모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을 폐기하라
- 남·북·미,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행동을 중단하라
- 정부 여당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책을 모색하라

최근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 전술 핵운용부대 군사 훈련,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강행하며 남북 관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은 앞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와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형 3축 체계와 미사일방어망을 무력화하는 시도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술핵 재배치론을 주장하며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신 냉전 체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남북 간 대립과 상호 위협은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남북 평화프로세스를 도외시하며, 9·19 남북 군사 합의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각축장으로 내모는 일이다.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남북 간의 적대적 긴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해간다면 북한 역시 이를 대응하여 핵 무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군사력 증강과 경쟁은 불안하고 위험한 한반도 긴장 관계의 근본적 요인이 되어 왔음을 남북 관계 역사를 통해 경험해왔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중단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전쟁의 공포로 위협하는 것이 아닌 평화의 전략과 행동을 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역사적 성찰을 통해 평화적 남북 관계 개선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미 합의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진정한 안보는 전쟁 연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과 화해의 관계를 통해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평화적 외교와 대화의 길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한국YWCA연합회

2022년 YWCA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22년 YWCA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지난 8월 23일(화)~25일(목), 경기권역협의회 주관으로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과 안산지역(416 기억교실,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다. 제2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는 장운재 목사(이화여자대학교 교목, 기독교학과 교수)의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YWCA 목적과 사무총장의 역할과 사명을 확인하고,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무전문대학원장)의 '비영리조직을 둘러싼 정부 정책 변화 및 YWCA 과제'와 김재춘 대표(가치환경경영연구소 대표)의 강연을 통해서 정부 정책과 시대변화에 따른 회원 YWCA 운영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한국YWCA의 변화 가운데 연합회 조은영 제1부회장의 진행 하에 2023년 재구조화 이후 연합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워크숍과 구정혜 사무총장의 진행 하에 회원YWCA 분담금 정책 개편을 위한 협의, 재구조화 현황 및 하반기 행사 일정 등을 공유하였다.

9월 월례아침기도회



9월 월례아침기도회가 9월 1일(목) 오전 9시 한국YWCA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서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김수산나 목사가 읊기 24장 13절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딛는 길에 새 힘주시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또한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가 속히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다시 평화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9월의 월례아침기도회가 마무리 되었다.

YWCA 온라인모금 교육 실시

한국YWCA연합회는 온라인모금 활성화를 위해 회원YWCA 실무자를 대상으로 'YWCA 온라인모금 교육'을 9월 1일(목)에 실시했다. 전국 25개 회원Y에서 45명이 참가하여 회원/후원관리 프로그램인 도너스(DONUS)를 활용해 온라인모금을 진행



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연합회와 청주YWCA가 각각 도너스를 활용하여 온라인모금을 진행한 사례를 발표했다. 연합회에서는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와 '청소년 작가가 소개하는 YWCA의 온라인모금'을 진행한 과정과 운영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청주YWCA에서는 회원/후원자 모임에서 도너스를 활용한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서 도너스 박찬진 팀장이 온라인모금 트렌드와 다른 기관의 사례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도너스에서 온라인모금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영상은 YWCA 온라인 아카데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제3회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경제편



제3회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_경제편(이하 청만세)이 9월 3일(토) 서울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조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평등, 기후위기, 평화통일 등의 영역으로 YWCA의 중점 운동 주제와 금융·경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상에는 분리배출 QR코드 제작을 주제로 발표한 기억코드팀, 최우수상에는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실걸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멸종위기팀과 이산가족과 전쟁고아 등 전쟁피해자들을 알리기 위한 Behind radio(피즐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한 NEXT팀이 수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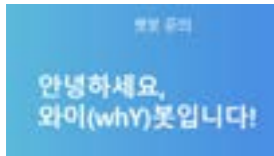
규정 폐지 규탄 기자회견

9월 14일(수) 오전 11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 추진을 규탄하



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에 제정된 규정이나, 지난 9월 2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본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산하기관에 비공개로 본 의견회신 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졌다.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위원회 4기 위원으로서 당일 기자회견의 대표발언자로 나선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는 통상 40일간의 견회신, 입법예고 기간을 3일, 7일로 처리하고,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과 시민사회운동의 위축을 우려하며 폐지추진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회원 YWCA를 비롯해 광역단위별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역대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재구조화 문의 챗봇(WAY봇) 오픈



지난 9월 16일(금), Y-net 사이트에 와이(whY)봇이 오픈되었다. 와이(whY)봇은 한국YWCA연합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회원YWCA의 질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능(AI) 챗봇을 일컫는 말로, Y-net 우측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용하거나 링크(<https://c11.kr/와이봇>)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Y-net 이용 문의나 회원YWCA 재구조화 관련 문의만 가능하며, 23년 9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 이후 회원YWCA의 이용 빈도와 요청에 따라 문의내용을 확장하여 정식 오픈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와이(whY)봇 사용방법은 Y-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입 배경과 회원YWCA 재구조화 관련 문의를 먼저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난호인 한국YWCA 월간 7,8월호 YWCA변화와 혁신9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Y-틴 청소년기후활동

YWCA청소년 Y-틴이 기후 정의를 위하여 '청소년 기후행동'을 진행하였다. 본 기후행동은 스웨덴 고등학생인 그레타 툰베리



(Greta Thunberg)의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청소년 기후 행동 일자인, 9월 23일(금)에 맞춰 9월 16일(금)부터 23일(금)까지 일주일간, Y-틴 공식 인스타그램(@yteen1922)과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행동은 '나부터 RE100'으로, Y-틴은 '제로웨이스트-텀블러 들고 다니기 캠페인(인중 캠페인)'을 열었고, 이 활동에는 청소년을 넘어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두번째 행동은 '청소년 RE100'으로, Y-틴은 선배세대와 정부, 기업과 전 세계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 100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는 총 22개의 회원YWCA 대표 청소년 10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성명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나의 다짐 한마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 모든 소식은 Y-틴 공식 인스타그램(@yteen19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흥청망청 중간공유회



9월 17일(토) 오후 2시부터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흥청망청'의 중간공유회가 진행되었다. 올해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6월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 13개 팀들이 각자 그동안 어디까지 시도해 봤는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1부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팀들이 각자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었던 2부 만남의 시간에서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멘토들과 고민을 상담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하면 좋을지를 열심히 고민하며 달려온 자리였다면, 이번 중간공유회 계기로 흥청망청이 하나의 팀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흥청망청의 최종 보고회는 오는 12월 22일(목)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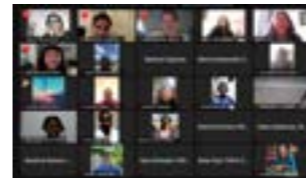
연합회 전 총무 이희호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 추모식

이희호 여사 탄신 100주년 기념식이 2022년 9월 21일에 이희호 여사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재단 등의 여성단



체와 사랑의친구들 등 여러 단체의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생전 이희호 선생의 가족 친지, 비서를 비롯한 이화여대와 이화여고 후배 등 300여 분이 현장에 참가하여 축사, 추모사, 회고담, 축하공연 등의 순서가 차례롭게 펼쳐졌다.

세계YWCA 대화모임



9월 21일 세계YWCA 대화모임이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화모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참가국의 시간대를 고려하여 총 3회 진행되었으며,

세계YWCA 한미미 부회장과 한국YWCA연합회 이한빛 간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대화모임의 주제는 세계YWCA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들을 각 회원국YWCA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각 회원국에서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례 나눔을 통해 각 회원국YWCA가 공동의 2035목표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YWCA에서도 준비 중인 <안전한 공간> 자료 번역 계획을 공유하였다. 현재 세계YWCA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Rise up!, FCM(Feminist Consultation Methodology), 안전한 공간 등이 있으며, 세계YWCA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세계YWCA 대화모임은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며, 2023년에 진행될 세계대회 전까지 회원국YWCA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9월 14일 신당역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피해자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9월 23일(금) 오후 8시,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렸다. 기도회는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라는 명칭 하에 24곳의 기독교 단체에서 주최하였다. 기도회는 타종과 함께 침묵기도를 하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으며 여성시편 13편을 통하여 예배로



의 초대가 이어졌다. 또한 3명의 발언자를 통한 현장의 발언으로 젠더 폭력에 의한 여성의 죽임에 대해 분노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 퍼기는 장근지 감리교여성지도력 연구원이 맡았으며, 축도는 공동축도로 젠더폭력에 의해 희생된 고인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마무리되었다. 예배가 마무리 된 뒤, 참가자들은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마련된 국화를 두고 포스트잇으로 기도를 적어나가는 등 피해자를 위한 기도를 이어나갔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9.24 기후정의행진



9월 24일(토) 서울, 시흥역 인근에는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YWCA에서는 역시 원영희 회장, 이선우 Y-틴 회장 및 총 81명이 참석하여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청(소)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외쳤으며, 특별히 진행YWCA 이재경 사무총장이 행진 중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한국YWCA는 'YWCA 9월기후정의행동 참가선언문'을 통해 생명파괴적인 현 체제와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한 청(소)년의 자리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주체인 여성의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지역의 자리에서 정의·평화·생명을 위한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선언문과 행진을 통해 YWCA는 핵발전 및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을 실행할 것과 관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으며, 기후재난이 심화시킨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봄정의가 구현되어야 함을 요청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한국YWCA 창립100주년 감사축제



올해 창립100주년을 맞아 회원과 시민이 함께 이루어온 기독교 여성운동 100년의 여정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한국YWCA 창립100

주년 감사축제'가 회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9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렸다. 감사축제는 CBS 김용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원영희 회장의 개회기도와 환영사, 김재화 시인의 100주년 축하시, 소리엘 장혁재님의 찬양으로 시작했다. 원영희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YWCA 100년은 우리들만의 100년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100년이요, 기독교 여성운동의 100년"임을 언급하며 "연합회와 52개 회원YWCA의 모든 활동가들과 회원들, YWCA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에 함께해 주신 시민들이 함께 맞는 100주년"임을 강조했다. 이날 감사축제는 100년의 여정에 함께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봉사자 헌신으로 함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시상식,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으며, 마지막 퍼포먼스로 100주년 엠블럼("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을 전달하며 미래세대에게 100년 이후 YWCA가 순항하도록 기원했다(자세한 내용은 6쪽)

10월 월례아침기도회



10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0월 4일(화) 오전 9시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국제관계 부위원장인 김은하

목사가 민수기 27장 1-11절 말씀을 통해 '열등감 없는 변방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또한 젠더 폭력으로 희생된 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YWCA와 52개 회원YWCA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낮은 곳,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함께 일으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WCD 여성평화결기 다큐영화 'Crossings' 상영회

2015년 국제여성평화결기(WCD) 행사를 통한 남과 북, 국제 여성들의 자매애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크로스링스(Crossings)'가 지난 10월 4일(화) 씨네 큐 신도림점에서 상영되었다. 2015년



전 세계 15개국 30여 명의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해 북에서 남으로 DMZ를 건너는 횡단인 국제여성평화결기(WCD)는 메어리드 맥과이어, 리마 보위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 글로리아 스타이넵, 크리스틴 안 등 저명한 평화운동가들이 시작부터 함께 하였다. 영화에서 볼 수 있듯 한국YWCA는 이 행사를 준비하며, 온 회원들이 힘을 합쳐 가로세로 양방 10미터 조각보를 제작하였으며 이것은 회원YWCA 각 지역에서 10조각씩 마음을 다해 엮어온 것으로, 총 1천 개의 각기 다른 모양의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이라는 평화의 상징을 갖고 있다.

제4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청소년 기후운동



10월 5일(수) <제 4차 탈핵기후생명 콜로키움: 청소년 기후운동>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은영 RE100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콜로키움에는 31개 회원

YWCA와 연합회 실무자 총 76명이 참석하였다. 콜로키움 1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소년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각 단체들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첫 순서는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의 강의, 2050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함께 청소년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수원YWCA 변남순 팀장의 강의로 수원 지역의 SDGs와 수원 Y-teen의 기후행동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의 강의,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기후정의운동'을 통해 '청소년기후행동'에서 진행해온 운동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우리 지역과 각 Y-teen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기후운동들을 공유하고 Y-teen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20쪽)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모금액 전달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YWCA



연합회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YWCA와의 연대를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한국YWCA는 우크라이나 YWCA 회장으로

로부터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회복을 위해 한국YWCA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받아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한 한국YWCA 모금>을 전개해왔다. 모금은 2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개인을 포함한 회원YWCA와 교회 및 단체의 도움으로 모금 달성금액은 27,730,000원이 모였으며 이는 9월 20일(화) 전달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 회장으로부터 감사편지가 전달되며 모금이 마무리 되었다.

미얀마를 위한 모금 캠페인 모금액 추가 전달

2021년 7월 12일, 한국YWCA연합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바라는 국내외 에큐메니컬 단체들과 함께 '버마-미얀마 플랫폼(Burma/Myanmar Platform)'을 발족하여,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왔다. 한국YWCA는 9월 28일(수) 버마플랫폼을 통하여 미얀마 현지 활동 지원을 위해 모인 7,000달러를 전달하였다.

2022 YWCA 소비자 모니터 교육



2022년 YWCA 모니터교육이 10월 12일(수)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회원YWCA 소비자 담당 실무자, 모니터, 상담원 4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교육은 농산물 유통과 소비자운동(백혜숙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메타버스 이해와 체험(조부경 THE성장연구소장)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특히 게더타운 플랫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체험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메타버스가 다양한 경제활동의 장으로 펼쳐질 수 있는 발전상에 대해 예측하고, 어떠한 소비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기후X청년X빈곤 심포지움 대화마당



한국YWCA연합회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7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기후X청년X빈곤 심포지움: "기후위기는 어떻게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의 두 번째 순서, 대화마당이 10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 공간 새길과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들의 빈곤과 이후 기후위기가 빚어낼 청년 빈곤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개최된 본 심포지움에는 청년긴급기후행동 강은빈 대표,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탈핵기후활동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청년과 사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기후위기대응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였다. 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특별히 여성청년에게 기후재난이 얼마나 더 취약한지를 강조하며, 기후위기대응에서 젠더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그룹토의에서는 참석자들과 함께 사회와 교회에 대한 요구와 청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워크숍의 시간을 가졌다. 당일에는 김예지 이사를 비롯한 연합회 실무자 총 6명이 참석하였다.

여가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



10월 15일 토요일 종각역 인근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 규탄을 위한 전국 집중 집회가 진행되었다. 본 집회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80여개 단체가 긴급하게 공동주최한 것으로, 한국YWCA에서는 연합회 및 14개 회원YWCA에서 총 60여명이 참여하였다. 한국YWCA에서는 의정부YWCA 박성희 팀장이 여성시민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하였고 연합회 김예지 이사과 유에스더 간사가 성평등 가치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에 참여하였으며 연합회 이한빛 간사가 집회 사회를 맡아 참여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

가족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현수막/SNS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과도 연대하여 긴급기자회견, 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40쪽)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토론회



한국YWCA연합회가 연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10월 19일 오후 2시,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 개정방향과 여성가족부 및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YWCA 유튜브와 진보당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발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박인숙 변호사가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토론은 이한빛 연합회 성평등운동 간사,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기사 분회장, 권은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대표로 총 4인의 발제자가 각각 여가부폐지에 대한 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국회/종부의 역할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그리고 여성노동권 실태와 안전권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한 요구안을 발표하였으며 요구안과 토론회의 결과는 여성가족부에 전달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간담회 피켓 시위 및 긴급기자회견 진행



10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주최 주요 여성단체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한국YWCA연합회와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당일 간담회가 진행되기 전 오후 2시부터 간담회가 시작되는 오후 2시 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후문 민원실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 한국YWCA연합회 대표로 참여한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은 참여단체에서 여가부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하였다고 답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과 연대하여 여가부 폐지 저지 SNS 캠페인과 관련된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여가부 폐지안 규탄 전국 집중 집회에도 공동주최단위로 함께 참여한 바 있다.

2022년 4분기 지역법인승인신청 회원Y 온라인간담회




10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 사천, 동해, 김해 YWCA 지역법인승인신청 회원Y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한국YWCA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회원Y 법인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하여서는 재구조화 교육, 부속시설 관리 운영 컨설팅, 법인이사의 책무성 등에 대한 교육, 재산이전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다음 온라인간담회 2차(진주, 마산, 거제, 포항, 의정부Y)는 11월 1일(화) 진행될 예정이다.

2022 한국YWCA 정책협의회



한국YWCA 운동 및 운영정책을 협의하는 2022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10월 27일(목) 회원 YWCA 회장과 사무총장, 실무자 150명 및 연합

회 이사 및 실무자 총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었다. YWCA운동정책을 다루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YWCA 지역 RE100 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유진 YWCA RE100위원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YWCA 운영정책 세션에서는, 시민운동 조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강의가 있었고, 뒤이어 재구조화 이후 YWCA의 전환 과제라는 제목으로 조은영 부회장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재구조화 이후 우리의 체질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회원운동, 지역운동, 청(소)년운동, 의사결정구조, 재정구조 등의 5가지 주제에 따라 10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정혜 상임이사가 회원YWCA 부담금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2021~2022. 10. 20까지 / 약정포함 / 단위: 원)

후원종류	구분	금액	후원종류	구분	금액
100주년 기념사업 후원	개인	154,253,600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개인	53,720,000
	회원YWCA	16,350,000		회원YWCA	17,200,000
	기업/단체	114,432,000		기업/단체	33,000,000
	소계	285,035,600		소계	103,920,000
		합 계	388,955,600		

1. 100주년사업 후원(농협 386-17-000052)

1) 개인 후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교자 명예연합위원	6,000,000	문상순 울산YWCA 증경회장	1,000,000	장혜숙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2,000,000	박종희 의정부YWCA 증경회장	1,000,000	故 주신애 연합회 증경회장	1,000,000
권오형 연합회 감사	1,000,000	박호권 한국YMCA연맹 국장	100,000	전배자 강릉YWCA 증경회장	100,000
권혜영 새문안교회 권사	1,000,000	배윤례 하남YWCA 증경회장	100,000	전화성 후원회 이사	(약정) 1,000,000
김난주 연합회 위원	100,000	백수미 속초YWCA 사무총장	50,000	정동신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김말숙 인천YWCA 증경회장	100,000	이현순 부천YWCA 사무총장	50,000	정서연 연합회 팀장	100,000
김 미 김구재단 이사장	50,000,000	송기영 법인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300,000	정유진 연합회 전 집행위원	200,000
김미경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100,000	신인숙 연합회 전 부장	200,000	정이숙 목포YWCA 회장	1,000,000
김미애 연합회 팀장	100,000	신정원 하남YWCA 사무총장	100,000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50,000
김병찬/임정임 연합회 간사	200,000	신현채 수원YWCA 증경회장	300,000	정진아 의정부YWCA 사무총장	100,000
김성자 제천YWCA 증경회장	1,000,000	안재웅 YMCA유지재단이사장	300,000	차경애 명예연합위원	2,000,000
김성희 예뮬룩 대표	100,000	연합회회장단 (원영희 조은영 이은영)	10,000,000	추순자 하대환 법무사 사무장	300,000
김수연 연합회 팀장	100,000	오영란 연합회 전 집행위원	1,000,000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사무국장	50,000
김숙희 100주년 공동위원장	3,000,000	오초녀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최정숙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순영 순천YWCA 증경회장	1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최지영 연합회 팀장	50,000
김연자 순천YWCA 증경회장	500,000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00,000	최만자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김은경 연합회이사	1,000,000	이봉진,故 고의순 연합회 위원	1,000,000	채수일 경동교회 담임목사	500,000
김은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이순희 안동YWCA 회장	100,000	최형선 연합회 전 임원	200,000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100,000	이숙현 연합회 전 임원	2,000,000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	1,000,000
김재신 연합회 감사	1,000,000	이연애 서울YWCA 증경회장	3,000,000	하선규 부산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재희 명예연합위원	2,0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273,600	하행여 남양주YWCA 증경회장	100,000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50,000	이옥식 광주YWCA 증경회장	1,000,000	함종민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김진용 연합회 자원위원	3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3,0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김태년 천안YWCA 증경회장	500,000	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	1,000,000	홍수진 연합회 팀장	100,000
김태련 아이코리아 회장	200,000	이행자 명예연합위원	3,000,000	홍인숙,故 서희전	20,000,000
김형 명예연합위원	3,000,000	이혜련 연합회 부장	100,000	황혜숙 연합회 전 임원	10,000,000
김형남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	임진영 연합회 부장	100,000	박미옥, 양서영, 이예린, 이은정	80,000
노인자 인천YWCA 회장	200,000	장원자 전 수원YWCA 관장	100,000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	200,000	장혜선 크레비스파트너스 이사	100,000		
		소 계(87명)	154,253,600		

2) 회원YWCA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릉YWCA	100,000	(사)서울YWCA	1,000,000	진해YWCA	100,000
거제YWCA	300,000	사천YWCA	300,000	창원YWCA 이사회	500,000
고양YWCA	100,000	서천YWCA	50,000	천안YWCA	200,000
광명YWCA	50,000	성남YWCA	50,000	춘천YWCA	100,000
광양YWCA	100,000	속초YWCA	100,000	충주YWCA	200,000
(사) 광주YWCA	1,000,000	안동YWCA	100,000	통영YWCA	300,000
군산YWCA	300,000	안산YWCA	100,000	파주YWCA	50,000
김해YWCA	100,000	안양YWCA	500,000	평택YWCA	100,000
남양주YWCA	100,000	양산YWCA	300,000	포항YWCA	200,000
남원YWCA	1,000,000	(사)울산YWCA	100,000	하남YWCA	100,000
동해YWCA	500,000	원주YWCA	100,000	YWCA 전국증경회장단모임	5,000,000
마산YWCA	100,000	의정부 YWCA	200,000	2021 경상공권협의회 회장단	100,000
부산YWCA	1,000,000	익산YWCA	100,000	2022 경상공권협의회 회장단	1,000,000
부천YWCA	50,000	제천YWCA	100,000	2022 경상공권 사무총장협의회	500,000
		소 계 (42개)	16,35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김필래선생기념사업회	5,000,000	소비자교육중앙회(주경순)	200,000	한국여성단체연합(김민문정)	200,000
국무총리실	1,000,000	소비자시민모임(문미란)	500,000	홍사단(박만규)	500,00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100,000	여성평화외교포럼	100,000	대상(주)	3,300,000
대한어머니회중앙회(박애스더)	100,000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100,000,000	서울우유	1,000,000
사회적기업진흥원	200,000	한국YMCA전국연맹	1,000,000	한솔사무기기	100,000
소비자공익네트워크(김연화)	100,000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100,000	의류바자회수입	932,000
소 계(18개)		114,432,000			

2. 세상을 만드는 100개의 프로젝트(농협 301-0193-6894-41)

1) 개인 후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강난파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	1,000,000
고미연 제주YWCA 회장	1,000,000	백소영 연합회 이사	1,000,000	이주영 서울YWCA 증경회장	2,000,000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1,000,000	서다미 대학-청년협의회회장	50,000	이주영 연합회 부장	1,000,000
김경희 수원YWCA 증경회장	1,000,000	신현주 청주YWCA 전 관장	100,000	이혜경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김덕순 울산YWCA 회장	1,000,000	연합회국장 (박동순, 박은실, 배정미, 송록희, 최수산나)	1,000,000	이희정 연합회 팀장	100,000
김순영 전 김리교 전국여교역자회 회장	1,000,000	연합회부장 (안정희, 이주영, 이혜련, 임진영, 홍현정)	1,000,000	임국이 대전YWCA 증경회장	1,000,000
김애자 목포YWCA 증경회장	1,000,000	오경애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정 속 안양YWCA 증경회장	100,000
김영희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3,000,000	원영희 연합회 회장	1,000,000	정혜순 김필래기념사업회장	1,000,000
김은숙 목포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유도희 여수YWCA 증경회장	1,000,000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김주현 파이낸셜 전 사장	2,000,000	유성희 연합회 전 사무총장	1,000,000	조은지 연합회 청년부회장	50,000
나은실 후원회 전 이사	1,000,000	유태규/김경천 광주YWCA 전 사무총장	1,000,000	차경애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000,000
명진숙 은학의집 관장	1,000,000	이숙현 연합회 전 임원	3,000,000	최현자 청주YWCA 증경회장	1,000,000
문영희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유림 서울YWCA 회장	1,000,000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1,000,000
박경미 이화여대교수	300,000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1,000,000	한영수 후원회 이사장	1,000,000
박금자 강릉YWCA 증경회장, 증경회장단모임 회장	1,000,000	이재홍/박동순 연합회 국장	1,000,000	함희경 연합회 이사	1,000,000
박영숙 연합회 전 사무총장	700,000	이정수 소협 사무총장	100,000	홍인숙 전 윈즈YWCA 총무	1,000,000
박봉림 제주YWCA 증경회장	1,000,000	이종경 연합회 전 사무총장	2,000,000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1,000,000
박용옥 사)3.1여성동지회 회장	1,000,000			김미숙 박은정 신옥희 신정아 윤세영 이예린 유애랑 유옥진 유정현 이재경 최경선 황미선	220,000
박윤애 연합회 이사	1,000,000				
소 계(74명)		53,720,000			

2) 후원YWCA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논산YWCA	100,000	(사)순천YWCA	1,000,000	창원YWCA	1,000,000
(사)대구YWCA	1,000,000	(사)여수YWCA	1,000,000	(사)제주YWCA	1,000,000
(사)대전YWCA	1,500,000	(사)인천YWCA	400,000	은학의집	1,000,000
사)목포YWCA	1,000,000	(사)전주YWCA	1,000,000	2019 5부지역위원장 (김옥순, 권경미, 조철숙, 양애자, 홍순옥)	1,000,000
사)서귀포YWCA	1,000,000	(사)제주YWCA	1,000,000		
(사)세종YWCA	1,200,000	진주YWCA	1,000,000		
(사)수원YWCA	1,000,000	진해YWCA	1,000,000		
소계 (18개)		17,200,000			

3) 기업/단체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단체명	금액
한국부인회총본부(남인숙)	100,000	농심	1,000,000	사회혁신기업 더함	1,000,000
한국소비자교육원	100,000	농협 명동지점	200,000	삼성전자	1,000,000
C제일제당	1,000,000	네이버	3,000,000	샘표식품(주)	2,000,000
(주)NS홈쇼핑	5,000,000	대한기독교서회	1,000,000	(주)아모레퍼시픽	2,000,000
(주)SPC	1,000,000	동서식품(주)	1,000,000	한국아쿠르트	1,000,000
(주)오투기	1,100,000	롯데제과(주)	1,000,000	홀플러스(주)	5,000,000
럭스나인(주)	5,000,000	매일유업(주)	500,000	기타 지정후원	
소계 (20개)		33,000,000			

3. 기타 지정후원 : 오성균 5백만원(전국 사무총장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

YWCA 1922 장학금 / SNS톤 모금현황(농협중앙회 301-1922-0000-31)

(2022. 1. 1 ~ 2022. 10. 2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김난주 김미숙 김미영 김병찬/임정임 김성희 김일석 김정민 김지영 김지현 김형남 도방주 돌람수렌 박문경 박은실 배옥희 배정미 배정희 백병숙 백정희 성은주 송록희 신성균 안영성 안정희 안혜숙 이숙현 이연중 이영희 이은영 이종식 이종임 이주영 이지선 이희경 장수신 장진경 장희숙 정금주 정동신 조은영 최유주 표대중	3,331,350
회원YWCA	강릉YWCA 광주YWCA, 논산YWCA 대전YWCA, 동해YWCA 목포YWCA, 서울YWCA 수원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총주YWCA	6,480,000
합 계		9,811,35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농협 301-0161-5540-11)

(2022. 8.17 ~ 2022. 10. 2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각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차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숙,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정빈,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식, 임세현, 임효정, 오사창, 원영희, 유도희, 유민,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영미, 이영숙, 이예림,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지음, 이한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1,685,000
합 계		1,685,000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20주기 온라인 모금현황

(2022. 7. 1 ~ 7.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미연, 구정혜, 김난주, 김다영, 김미숙, 김병찬, 김성희, 김수연, 김신정, 김은경, 김은주, 김은희, 김진용, 김종민, 김혜연, 나차더르즈 돌람수렌, 남궁혜경, 박규덕, 박동순, 박문경, 박순주, 박은실, 배정미, 서순아, 송록희, 송수연, 심민경, 안정희, 양서영, 윤수정, 이영미, 이수진, 이예림, 이은영, 이재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음, 이현주, 이혜련, 이희정, 임행심, 장세영, 정서연, 최미선, 최수산나, 최수진, 최유주, 한영수, 함석임, 함희경, 홍기자, 홍수진, 홍현정	1,090,000
합 계		1,090,000

The 20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한국의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20회가 되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여성들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숨은 지도력을 발굴하고 도전과 용기와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온 여성 리더를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뜻 깊은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0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오후 2시
장 소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2층)
수상자 대상 김중미(작가), 젊은지도자상 노영선(교수)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양은서 간사

2022년 YWCA 전국증경회장 연수



2022년 YWCA 전국증경회장연수가 9월 20일(화)~21일(수)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다. 20일(화) 개회예배로 박태환 담임목사(강릉중앙교회)의 말씀, 강릉YWCA 하임찬양단의 특송이 있었고, 이어 박금자 회장(전국증경회장모임)의 인사말씀, 원영희 회장(한국YWCA연합회)의 축하말씀 및 방계자 회장(강릉YWCA)의 환영인사 말씀으로 참석하신 내빈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정혜 사무총장(한국YWCA연합회)의 한국YWCA 100주년 축하 행사 보고 후, 사무회의로 마무리되었다. 21일(수) 오전에는 '아르페 뮤지엄'에서 문화탐방을 하였으며, 이어 '경포호수공원'에서 폐회 예배를 드렸다. 박금자 회장의 말씀을 끝으로 감사 인사와, 4년 만에 열린 전국증경회장연수에 대한 감회, 내년 차기 임원들의 앞으로를 향한 다짐을 들으며 마무리 되었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동해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업소계도 캠페인 실시



동해YWCA(회장 홍성주)는 7월 28일(목) 저녁 망상해변에서 동해시청 및 동해경찰서 등 민관기관과 함께 피서철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여름휴가철 피서지에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대상 점검·단속과 피서지에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계도·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서울Y 기독교시민아카데미



서울Y는 9월의 화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기독교시민아카데미 '환대와 평화를 묻다'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울Y 핵심 운동 주제인 성평등, 기후위기, 노동, 평화를 신앙과 연결해 기독교시민으로서 환대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강사로는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일어문학), 김혜령 교수(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구미정 교수(송실대, 이은교회 담임목사)가 함께했다.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환대를 실천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살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살고 살리는 영성으로 서로를 돌보며 생명 세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속초YWCA

김다미 간사

회원의 날 '같이(가치)나누는 날'



속초YWCA(회장 박연희)는 지난 9월 23일(금) 오전 11시~저녁 7시 중앙감리교회에서 회원의 날을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가치(같이) 나누는 날"이란 주제로 기후정의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일일차집과 바자회를 열게 되었다. 일일차집에서는 공정무역 커피와 친환경 수제청으로 만든 음료 240잔(총 420잔) 이상을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하였고 환경을 살리는 em발효액을 500ml씩 나누었으며, 바자회에서는 후원해 주신 여러 업체의 물품과 개인적으로 후원한 생활용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고 비닐봉

지가 아닌 장바구니를 사용하였다. 시장님과 시·기관 관계자 및 교회, 회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쓰레기 배출이 줄었고 불편하지만 지속해야 하는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속초YWCA 회원의 날이 되었다. 이날 수익금은 속초YWCA의 기후정의 환경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여성 시민운동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이다.

원주YWCA

양지영 간사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 업무협약식



9월 17일(토) 오후 7시 원주YWCA 강당에서 이수복 회장 및 협찬사 대표 외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꽃길 깔아주기 운동'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본 운동은 원주YWCA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지역 위기 청소년 대상 정서적·물질적인 후원과 더불어 원주시민의 자원봉사참여로 함께하는 시민참여운동을 하기 위함이다. 원주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5명 내외의 청소년에게 이불과 반찬 지원 및 무료 사진 촬영 등 물질후원과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 후원을 이어간다.

(사)인천YWCA

유지혜 간사

2022 기독교여성 아카데미



(사)인천YWCA는 아카데미위원회 주관으로 9월 15일(목), 9월 22일(목), 10월 6일(목) 총 3회에 걸쳐 기독교여성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구약학 박사인 김순영(現, 미주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교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여성"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여성인물을 탐구하였으며, 드보라, 다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여성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춘천YWCA

이지연 간사

춘천YWCA 아가들보미 개강



춘천YWCA는 8월 22일(월)부터 9월 2일(금)까지 열흘간 춘천YWCA 회관에서 아가들보미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가들보미로 활동을 원하는 수강생 17명이 아가들보미의 자세, 아동인권, 영유아발달의 이해, 영양관리등의 내용으로 총 40시간의 교육을 마쳤다. 17명이 모두 수료하였으며, 베이비시터 자격검정은 15명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였다. 이들은 아가들보미를 원하는 가정에서 돌보미로 파견되어 활동 할 예정이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제10회 고양여성영화제 '돌본다는 것에 관하여 - 상호돌봄, 생태돌봄의 시선으로'



고양YWCA는 고양시 후원으로 지난 9월 15일(목)~20(화) 일산CGV, 백석메가박스,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서 '돌본다는 것에 관하여-상호돌봄, 생태돌봄의 시선으로'를 주제로 13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제10회 고양여성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영화해설,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가치를 되문게 된 돌봄과 연대의 의미를 영화를 통해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

졌고 나아가 기후위기시대의 생태적 돌봄까지 돌봄의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돌봄'에 대한 의미있는 화두를 던진 고양여성영화제는 시민들의 호평을 받으며 11회 고양여성영화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기후위기대응 시민현장 포럼 원탁토론회



8월 20일(토)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에너지의 날 기후위기 대응 시민현장 포럼을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에는 주제 발제로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대응 광명시민현장 개요와 추진 과정',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가 '광명시민현장 비전과 사례'를 발표하였다. 2부에는 현장에 담은 4가지 구체적인 도시비전(녹색생활도시, 재난교육도시, 탈탄소정책도시, 기후정의도시)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열어 시민 스스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명시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과 정책을 만들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에너지의 날에 제정 선포한 "기후위기 대응 광명시민현장"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및 확산과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광명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앞서 19일(금) 하안사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남양주시 양성평등 주간 행사 참여 '그림책으로 하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남양주YWCA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 "그림책으로

로 하는 양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만들기" 교육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과 9월 1일(목) 남양주시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참여하여 수업 중에 배웠던 양성평등 그림책을 소개하고 부스를 방문하신 분들께 여성다움, 남성다움, 나다움에 속하는 감정카드를 보드판에 붙이면서 성 고정관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부천YWCA 청년기후포럼

9월 22일(목) 부천YWCA에서 부천의 청년공동체를 꿈꾸는 피스오브피스와 부천YWCA가 함께하는 청년기후포럼이 열렸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탈원전은 어떤 모습일까? 사토 요시유키, 다구치 다쿠미의 책 <탈원전의 철학>은 청년의 눈으로 다시 읽혀 <NUCLEAR? NEW: CLEAR> 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년기후포럼"이 기획되었다. 청년들과 우리시대 기후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할까? 소책자에서 힌트를 얻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책을 선정하고 함께 '나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여 9월 22일 부천YWCA에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에릭 홀트하우스의 <미래의 지구>를 통해 바라 본 나와 우리들의 미래,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비전은 무엇일까? 진지한 눈빛과 솔직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가득한 부천YWCA에서 변화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청년기후포럼"이었다.



성남YWCA 박미선 팀장
1372 소비자상담 홍보캠페인

성남YWCA는 지난 9월 21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372 소비자상담 홍보캠페인'을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진행하였다. 날로 진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교묘한 상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피해 등을 예방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성남YWCA 회원들이 함께 동참했다.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도 있었



으며 1372 소비자상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새롭게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수원YWCA 강은진 주임
환경을 지키는 D.I.Y 손수건 꾸미기



(사)수원YWCA는 9월 17일(토) 경기 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16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다.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는 '상상 그 이상! 배움과 나눔, 행복놀이터'를 주제로 평생학습 체험·전시·공연, 초청 강연, 백일장, 보물찾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사)수원YWCA는 학습놀이터 부분에 참가하였다. 제로웨이스트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법 중 휴지 사용을 줄이고 손수건을 사용하자는 취지를 연결하여 '환경을 지키는 나만의 D.I.Y 손수건 꾸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스에 방문한 수원시민들은 제로웨이스트, 탄소중립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친환경 손수건에 패브릭 마커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도장을 찍는 등 나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사)수원YWCA는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와 탄소중립 등 환경 활동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기후위기 극복 챌린지' 탄소중립 시민체험부스 운영



9월 17일(토)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 행사가 열렸다. '단 하나의 지구, 함께 실천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경퀴즈대회, 탄소중립 시민체험부스, 이색 자전거체험, 하나뿐인 얼주(Earth) 마켓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사)안산YWCA는 '기후위기 극복 챌린지'라는 탄소중립 시민체험부스 운영했으며, 약 150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션들을 수행했다. 기후위기! 같은 그림찾기 게임, 기후정의 인증샷 등 기후위기와 연계된 다양한 게임과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탄소중립 홍보물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 탄소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안내하고, 참여를 인증하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탄소중립 시민실천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사)안양YWCA 문찬미 간사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 발표대회



(사)안양YWCA가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 발표대회가 8월 8일(월) 오전 10시 안양시청 3층 상형실에서 열렸다. 올해 안양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고 88건의 제안을 받아 최종 11건이 선정되어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제안대회에는 '마을공원 활용방안,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재활용 포인트제 활용'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발굴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사)안양YWCA는 제안발표 대회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수요채식밥상과 환경영화공동상영회 진행



의정부YWCA는 9월 21일(수)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 우리Y RE100 '기후정의 스크린 & 마이크' 행동을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진행하였다. 수요채식밥상과 환경영화 상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 기후위기 의정부비상 행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 의정

부YWCA, 꿈을 공동체와, 비건인, 개인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1부는 채식으로 준비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2부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추천한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른다」영화를 시청하였다. 주변에서 손쉽게 구하고 맛있게 먹던 먹거리로 인해 지구가 멸망해가고, 인류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3부는 영화를 본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참석자들 모두 육식위주의 밥상을 채식위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파주YWCA 김래정 간사

파주YWCA가 24명의 리뉴(RE+NEW) 환경강사를 양성하다



파주YWCA는 9월 6일(화)부터 10월 6일까지 리뉴(RE+NEW) 환경강사 양성교육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교육 과정은 총 9강으로 1-6강에서는 온라인으로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지속 가능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7-9 강에서는 파주YWCA 강당에 모여 재활용 분리배출 모뎀 대항 대형보드게임을 체험하였고, 재활용·분리배출을 주제로 한 다양한 퍼즐게임과 업사이클 만들기 체험(밀키 큐브, 푸른 지구 분 등)을 하였으며, 교육생의 강의 시연과 프로그램 평가 및 수료식으로 마무리하였다. 각 차시마다 환경 생명 운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 12명씩을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환경교육을 하였고, 참석률 80%가 넘는 교육생이 1차시에 12명, 2차시에도 12명으로 모두 합해서 24명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다. 파주YWCA는 향후에 24명의 리뉴(RE+NEW) 환경강사 양성교육 수료자들과 함께 재(RE)사용/새(NEW)활용으로 환경을 살리고 보전하는 일을 위해 힘을 계획이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하남YWCA 캘리그래피 전시회

하남YWCA는 지난 9월 19일(월)-23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랑 한판쓰고 행복하자'라는 주제로 은혜교회 카페 1층에서 약 20여명의 참여자들이 그동안 20회 수업을 통해 갖고 닦은

실력으로 캘리그래피 전시회 열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긴 코로나로 인해 소외되고 우울증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여성들이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캘리그래피를 배움으로써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전시와 판매의 기회를 마련하여 자신감 증대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주임

기후대응 다함께 생활속 리빙랩 한마당

탈핵기후생명운동을 기반으로 교육과 키움, 체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자기 주도적 에너지 시민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 다함께 생활속 리빙랩 한마당' 행사를 8월 27일 오전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논산시 공공형 어린이집(논산세일, 작은별, 행복한)과 참여연대로 아동과 가족 단위,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기후대응 다함께 생활속 리빙랩 한마당'은 사전 신청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교육을 영상으로 학습하고 '기후대응 다함께 골든벨'을 통해 기후위기의 인식과 실천해야 할 행동의 답을 찾는 계기를 마련했다. 살아있는 생활 실험실을 의미하는 리빙랩 한마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폭염, 폭우, 산불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발적인 비상 행동으로 지구의 위기를 늦추고 주도적인 에너지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제 27회 여성포럼 "MZ세대 젠더 인식격차로 인한 갈등 해결방안 모색"

대전YWCA는 9월 2일(금) 오후 2시 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제27회 대전여성포럼을 진행하였다. 포럼을 위해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전시민 20:30대 대상으로 총 400명(여성



200명, 남성 200명)이 설문에 응답한 자료로 이정은 공동대표(소통과 치유)의 '대전시민 MZ세대 젠더인식조사' 주제발표를 실시하였으며, 류유선 센터장(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나규정정책국장(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권사랑(MZ세대 여성), 박호건(MZ세대 남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MZ세대 젠더 인식격차로 인한 갈등을 파악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젠더 갈등은 남녀로 구분지어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 구조와 권력, 문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사)세종YWCA 양유정 간사

세종와~이마켓



(사)세종YWCA는 9월 26일(월)부터 29일(수)까지 (사)세종YWCA 주차장과 교육장에서 '2022 세종와~이마켓'을 열었다. '세종와~이마켓'은 세종YWCA 반곡동 신축회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로 의류, 제로웨이스트 및 EM, 잡화(양말, 스카프), 로컬 장인의 가죽 지갑, 가방, 도자기, 식품(고춧가루, 춘천닭갈비, 생강편강) 등으로 이루어졌다. EM과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청소년 양성평등교육("우리같이 생각해볼래?")

제천YWCA에서는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사업 "우리 같이 생각해볼래?" 라는 주제로 청소년기 울



바른 성지식 확립과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하였다. 덕산초등학교 5,6학년 20명(매주 수)과 제천시청 소년센터 초,중학생 20명(매주 토)을 대상으로 각 4회기에 걸쳐 '같이면서도 다른 몸, 여혐과 남혐에 대한 이야기, 성폭력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성차이, 성차별, 성역할'에 대해 강의하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사례를 듣고 토론하며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나와 다름에 대한 차이를 알고 성차별과 성편견 없는 의식 전환 및 남성 여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천안YWCA "내 꿈을 펼쳐라,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프로그램 : 꿈라벨 진행"



천안 YWCA는 8월 8일(월), 여름방학을 맞아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진로의 한계를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의지를 갖고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 꿈라벨"을 진행하였다. 바리스타, 시민활동가, 요리사, 크리에이터 등 신직업을 직접 체험하여 상상만 했던 진로를 실제적으로 실행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이번 프로그램이 진로탐색과 맞춤형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이고 보다 진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응원한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제 23회 2022년 충북여성영화제

청주YWCA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충북여성영화제를 9월 15일-17일까지 청주성안길 CGV에서 진행



하였다. 다양한 삶속에서 각자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로 9편의 영화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영화제에서는 미싱타는 여자들의 감독인 김정영 감독

과(공동감독 이혜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의 한 분인 신순애 배우님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세대를 넘는 연대와 감동을 관객들과 함께 하였다. 더불어 이번 영화제에서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팝콘톡을 진행함으로써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더욱 풍성하게 여성영화제를 진행하였다.

충주YWCA

김성화 간사

채우장 캠페인



충주YWCA는 9월 17일(토), 충북도청 지원사업 '우리 모두 다함께 용기 내의 "채우장(채우는장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충주시 호암생태전

시관 앞에서 실무활동가와 충주시민 자원봉사자, Y틴이 함께 EM 체험존과 제로웨이스트 물품판매를 진행하고, 충주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지역의 농가 농작물을 원하는 만큼 비닐·플라스틱 없이 담아갈 수 있도록 장바구니로 장보기를 실천했다. 앞으로 충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비닐·플라스틱 없는 장보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경상권역

거제YWCA

나선주 간사

"다문화가족 자녀의 행복한 미래 펼치기, 드림하이!"



거제YWCA 부설 거제시가족센터에서는 8월 16일(화), 18일(목)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 미래세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동기부여를 위한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드림하이"가 운영되었다. "드림하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거제시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초등 3학년~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창의 메이커 활동, 진로 소양교육, 직업테마파크(키자니아 부산) 방문 등 총 5회기의 교육·체험 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행복한 경험을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직업을 간접 경험을 하며 미래에 관한 생각과 꿈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후기를 전하였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기후위기에따른 환경활동가 양성 "초록교육지도사"



김해YWCA에서는 당해 연도 8월 17일(수)부터 11월까지 지역의 여성들에게 단기집중 교육을 통한 환경 분야의 전문 활동가로서 성장시키고자 경상남도 양성평등기금으로 '초록교육지도사'를 양성하였다.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본 사업은 인간과 자연간의 올바른 관계인식,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전달하고 실천을 이끌어낼 환경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총 9강의 기초교육과 8강의 심화, 1강의 현장체험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을 수료한 9명의 수료생들은 2023년 5월까지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대상에 맞는 환경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전문 환경 활동가이자 강사로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구YWCA

김은혜 간사

대구YWCA 추석맞이 큰장날

9월 7일(수) 대구YWCA 회관 앞에서 추석맞이 큰장날이 열렸



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YWCA의 큰장날은 매년 추석 명절 전에 진행되며,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착한 소비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다. 과일·채소를 비롯하여 건어물, 젓갈, 지역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 중 하나이다. 어묵, 만두 등 간단한 먹거리도 만들어 판매하였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큰장날을 찾은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큰장날을 통해 대구YWCA를 널리 알리고, 우리의 작은 소비활동을 통해 이웃,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마산YWCA

강현영 간사

문해력 운동 '한글아 놀자' 2기 개강



9월 24일(토)부터 마산YWCA에서는 문해력 운동 '한글아 놀자' 회원 프로그램(2기)이 개강하였다. 2022년 상반기에 진행하였던 1기에 이어서 2기가 개강하였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 수업을 6-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글 공부 가 아닌 한글 놀이로 접근하여 글 사냥, 그림 산책, 글자 운동회, 글자시장, 글자 요리 등의 활동이 구성된 12주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이 한글에 흥미를 가져 쓰기와 읽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소통과 이해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사)부산YWCA

여진경 부장

(사)부산YWCA '부산 클린에너지, 24절기와 만나다' 진행



8월 23일(화) 부산시 민공원에서, 9월 26일(월)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부산 클린에너지, 24절기와 만나다'를 진행하였다. 8월에는 24절기 중 햇벌을 연상하게 하는 처서를 맞이해 태양에너지 주제로 태양광에너지 휴대폰 충전기 만들기 체험활동을,

9월에는 곡식 등 각종 생물을 연상하게 하는 추분에 생물(바이오)에너지를 초 밝히기 체험활동을 하며 클린에너지를 소개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며 지구 온난화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클린에너지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절기를 접목하여 시민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켰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사천YWCA 창립34주년 기념예배



사천YWCA는 9월 14일(수) 강당에서 창립 34주년 기념예배를 열었다. 이사, 실무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대 목사(동산재건교회)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는 말씀으로 34년간 지역에서 Y인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모든 것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었다. 이후 진행순서로 떡케이크 커팅 후 기념촬영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강미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사천YWCA는 또다른 전환점에 서 있다. 지역법인 설립 진행으로 더욱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명과 헌신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알맞은 도구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하며 모두 함께라서 더욱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안동YWCA

남수정 부장

찾아가는 어린이 양성평등교육



안동YWCA는 9월 20일~9월26일까지 연세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지원사업인 양성평등교육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아요' 교육을 진행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

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유아와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안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와 유치원 12곳의 신청을 받아 양성평등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들을 파견하며 이론을 포함하여 역할극 진행까지 대상자별 총 3회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가정'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양산YWCA 김유경 간사

제15회 여성들의 이야기터



(사)양산YWCA(회장 박해숙)는 9월 7일(수) 양산YWCA 회관에서 제15회 여성들의 이야기터를 개최하였다. 여성들의 이야기터는 지역 여성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겪은 경험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여성들의 정책적인 바람을 소신껏 발언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다. 올해에는 발표자들이 환경을 비롯한 녹조 문제 기후 위기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함으로써 여성들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성'으로서 '여성인 우리'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며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사)양산YWCA는 여성이 급속한 사회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에 부응하며, 삶과 일터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청(소)년 DMZ평화기행 '밟다, 보다, 흐르다'



정전을 아픔을 간직한지 70년이 지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꼭 알아보고 나누어야 할 평화 이야기를 배우고 나누기 위해 8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2박3일간 공익활동 지원사업 일환 "청(소)

년 DMZ평화기행 '밟다, 보다, 흐르다.' 사업이 진행되었다. 청(소)년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DMZ 생태평화벨트(서울-김포-파주-연천)를 투어하며 역사기념관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조별과제를 통해 '밟다, 보다, 흐르다'의 키워드로 평화통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역할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곳은 날씨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남과 북 분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평화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며 우리가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사)울산YWCA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DMZ 땅 위에서 남과 북의 평화가 세대의 과제임을 알고 평화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진주YWCA 윤인주 간사

진주기후정의대행진 '지금당장, 기후정의!'



진주YWCA는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의 13개 단체와 관봉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100여명과 함께 9월 23일 기후정의진주대행진을 진행하였다. 진주대행진에 앞서 고명정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대표의 모두발언, 관봉초, 대곡초 학생의 대표발언, 북극곰과 공룡의 메시지전달, 지역 공연전문팀 맥박의 공연 등 기후정의선언식이 있었다. 기후정의 선언 후 참가자들은 행진 대열에 맞추어 진주천년광장-일호광장까지의 진주대로 구간을 행진하였다.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행동하라!' 진주시민들의 의식에 깊은 공감이 있기를 바란다.

진해YWCA 서지원 간사

기후위기 비상행동 캠페인

9월 23일(금)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에서 제17차 창원 기후위기 비상행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창원의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회는 진해 YWCA주관으로 7개 단체 15여명이 참석하였다. 특별히 진해YWCA는 인턴 직원이 참여하여 타 연대의 귀감이 되었으며, 또한 지나가는 대학생



이 합류하여 열기를 더하였다. 캠페인을 마친 다음 소개와 소감 발언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날 서울에서 열리는 924기후정의 전국 행진 참가를 서로 독려했다.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였으나 횡수를 거듭할수록 참여와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1.5도 억제, 2050넷제로를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계속될 것이며, 이제는 탄소중립을 넘어 배출 제로를 외쳐야 할 절박한 시점이 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정의를 위한 실천과 국가와 대기업 정치인에게 강력히 탄소배출제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사)창원YWCA 윤승희 간사

슬로우패션 업사이클링



창원YWCA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의류들을 모아 '슬로우패션 업사이클링'을 시행하였다.

빠르게 바뀌는 유행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홈쇼핑 등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옷이 지구환경과 기후위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3개월의 활동 속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습으로 탄생한 작품들은 9월 15일~16일 양일간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였다. 선진국의 '패스트패션(Fast Fashion)'으로 후진국인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는 매년 의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분해되는 데만 수백 년이 걸리는 의류 폐기물 관련 부정의 폐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시민 모두가 '슬로우패션'을 지향하고,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원YWCA는 이러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인형극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진행



통영YWCA(회장 원필숙)는 5월부터 9월까지 통영·고성지역의 유아동 관련 기관 12곳 및 청소년 기관 9곳과 어르신 기관 2곳으로 찾아가 쉽고 친숙하게 올바른 양성평등의 인식변화의 기회를 갖고자 인형극으로 특성화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전 2년 동안 경상남도 양성평등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실직여성, 취약계층 등으로 육성된 교육 강사들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의 폭을 확대함으로 경력관리를 지원하였고 경남도민의 양성평등의식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여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통영YWCA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전 세대를 걸쳐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여 올바른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미래사회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여 경남도내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지원하고 힘쓸 것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포항YWCA 중점운동 전개를 위한 추석맞이 바자회 개최



9월 1일(목) 2022년 추석맞이 바자회를 포항YWCA 회관 3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비대면 바자회, 대면 바자회, 아나바다 장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운동, 양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등 포항YWCA 중점운동 전개를 위해 실시하였다. 친환경EM제품, 핸드메이드 제품뿐 아니라 자두, 건가지미, 유과 등의 지역 농산물, 회원들이 직접 만든 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아껴쓰고 나누어쓰고 바꾸어쓰고 다시 쓰다'라는 의미의 아나바다 장터 행사를 위해 회원들과 포항시민들의 잠자고 있는 물품 기증을 통해서 포항YWCA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더

육 뜻 깊은 행사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바자회를 몇 년 만에 개최하게 되어 뜻 깊고 동참해주신 회원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수익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중점운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전라-제주권역

광양YWCA

이효진 주임

EM을 활용한 생활방역과 플로깅 실시



광양YWCA는 지난 2022년 9월 3일 토요일 광양시 옥룡면 산본마을에서 EM을 활용한 생활방역과 플로깅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돌보고살피고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길과 하천을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EM활성액으로 방역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사)광주YWCA

서정현 국장

(사)광주YWCA 창립100주년 기념 Y홈커밍데이 & 비전포럼



(사)광주YWCA는 '창립100주년 기념 Y홈커밍데이 & 비전포럼'을 지난 9월 27일(화) 12시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홈커밍데이는 광주YWCA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동안 Y를 위해 헌신봉사하셨던 전(前) 이사·위원·실무활동가 100여명을 모시고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비전포럼은 "여성과 함께한 100년, 내일을 여는 (사)광주YWCA"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이시며 한국YWCA 100주년 자문위원이신 장윤재 목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 비전포럼을 통하여 100년의 역사를 지닌 여성단체

의 역사성을 알리고 앞으로 여성과 함께할 100년을 위해 Y가 시대 소명에 응답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기독교정신, 시민사회역할을 비전을 제시하는 귀한시간이 되었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군산YWCA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



군산YWCA는 군산명산지역아동센터 아동 18명과 함께 9월 1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식품 섭취하기 주제로 식품의 기본적인 사항과 표시내용,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시기와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달과 퀴즈를 통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다소 어려운 주제를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지역아동센터 교사와 아동들에게 매우 유익한 소비자 교육이 되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Y-틴 직업체험학습



남원YWCA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Y-틴에서 9월 12일(금)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제빵사에 대한 진로체험을 실시하였다. 제과제빵특강 및 케이크 만들기를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면서 크림 아이싱 및 데코레이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Y-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성인이 되어 직업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목포YWCA, 2022년 제60회 목포 시민의 날 특별상 수상!



(사)목포YWCA는 목포시를 빛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많은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2022년 제60회 목포 시민의 날 특별상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1947년 창립 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돌봄과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 꾸준한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창립75주년을 맞이하여 75년간 수고하고 헌신한 명예이사님, 중경회장님, 이사님, 실무자, 그리고 이천이백여명의 회원들의 노력들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사)목포YWCA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여성경제활동과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돌봄과 나눔의 가치로 정의·평화·생명공동체를 위해 더 힘있게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그린로하스엑스포 연계 식생활교육



서귀포YWCA(회장 고맹수)와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식생활교육을 위해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그린로하스엑스포와 연계해 지난 8월5일(금)-7일(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식생활교육은 비만 예방을 위한 저당교육과 바나나를 활용한 여름철 건강 음료로 당을 대체할 수 있는 [망바스무디&초코볼] 레시피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로하스엑스포는 첫날은 5일은 100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상황을 이뤘다.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식생활교육은 직접 개발한 건강레시피 체험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지역을 찾아가고 있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사)순천YWCA 청소년 대상 나트륨·당류 줄이기 교육 실시



(사)순천YWCA는 2022년 9월 17일(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과 건강한 먹거리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사)순천YWCA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해 건강을 위한 유익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영양전문강사의 진행으로 학교 급식과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고 있는 영양성분에 대해 보다 더 쉽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나트륨·당류 줄이기 청소년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고, 청소년 스스로가 저감화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며,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사)여수YWCA

서하람 간사

여수시민 100여명과 함께하는 여성영화관람 상영회



(사)여수YWCA(회장 조애숙)에서는 창립40주년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9월 20일(화) 오후 2시, 웅천CGV 2관에서 여수 시민 100여명과 함께하는 여성영화관람 상영회를 열었다. 영화 '미싱타는 여자들'(감독 이혁래·김정영)은 평화시장 여성노동자들의 청춘과 재회를 다룬 영화로 여자라서 혹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 대신 미싱을 타며 '시다' 또는 '공순이'로 불리던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특히, 이번 상영회에서는 김정영 감독과 임미경 출연자를 초청하여 옥은정 회원지도력 위원장의 사회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사)여수YWCA는 창립40주년과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여수시민들에게 영화 '미싱타는 여자들'을 무료 상영함으로써 '오늘의 청춘들이 어제의 청춘에게 답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연대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달하였다.

익산YWCA 박순주 간사
일일바자회 및 아나바다 운동



8월 30일(화) 익산YWCA는 6층 사무실 앞에서 익산YWCA는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일 바자회 및 아나바다 운동을 하였다. 32개 품목으로 직접 만들어 판매한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으며 직접 만든 맛 간장과 수제 국산 된장, 김치, 태양초 고춧가루는 오전에 다 팔렸다. 당일 지역에서 바로 공수한 포도와 샤인머스켓은 신선함을 자랑하였다. 이날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과 익산 시민들의 끊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바자회는 성황리에 마쳤다. 익산YWCA 자원활동가와 실무자는 바자회를 열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하고 협조하는 마음의 큰 성과를 맛보았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2022 '양성평등 임금의 날' 성별임금격차 인식조사 활동

(사)전주YWCA는 2022년 9월 1일(목)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



이하하여 8월 24(수)-30(화)까지 성별임금격차 인식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성별임금격차의 실재를 알리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되고자 실시한 '성별임금격차 인식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으로 진행, 24일(수)-30일(화)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6일(금)에는 전주 한옥 마을에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온·오프라인 합산 총 200명 이상이 설문조사와 캠페인에 참여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평등한 임금사회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다. 전주YWCA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다.

(사)제주YWCA 추현우 간사
"2022년 제주시 평화아카데미 현장탐방" 진행



9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2022년 제주시 평화아카데미 현장탐방"이 고성통일전망대 및 DMZ박물관 등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사)제주YWCA에서 운영한 "2022년 제주시 평화아카데미"는 매월 1-2회 강좌로 진행되어 5월부터 9월까지 총 7강좌와 현장탐방 1회로 운영되었다. 강좌는 매회 3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현장탐방은 수강생 중 20여 명이 선발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현장탐방은 "[평화&탐방] 길 위의 평화학교-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탐방을 마친 참석자들은 고성통일전망대 등을 견학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한 교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평화아카데미는 국내 우수강사를 초빙해 세계평화, 제주평화, 성평등, 대북지원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고,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평화문화 정착과 시민의 의식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간병비 부담은 덜고, 만족은 더하고!

마음 편하게 입원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해 보세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거동이나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 등 간호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구나 거친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준수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진 호출벨을 사용합니다.

병문안 시간
평 일 18:00~20:00
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